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미 대륙에 온 청교도의 신앙을 잃지 않는 크리스천들 되게 해주시고, 전 파편 복음을 믿고 참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성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0월 10일 (토) 제 155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의 섭리, 세상에서 심판과 자비로 발현

월드, 미국 첫 신문에 담겨진 청교도들의 사상과 보도 지침 소개

인터넷 미디어의 무서운 성장을 반영하듯 지난 달 25일을 기억하는 미국 언론은 그렇게 많지 않다. 1690년 9월 25일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바로 보스턴에서 청교도들 주도로 만들어진 신문이다(Publick Occurrences: Both Forreign and Domestic). 17세기에 나온 인쇄물들은 보통 왕이나 관료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나 좋아 보이는 내용들만 골라서 내용이 채워진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오히려 나쁜거나 안 좋은 뉴스들도 보도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좋

은 뉴스건 나쁜 뉴스건 그 모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월드'지는 미국 신문 발행 325주년을 맞아 신문에 영향을 미친 청교도들의 생각을 정리해준다. 한마디로, 크리스천의 믿음이 반드시 신문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The Puritan influence on the press: Christian belief and the 325th anniversary of American newspapers).



미국에 처음으로 청교도들 주도로 신문 Publick Occurrences가 만들어졌다.

17세기 당시 뉴잉글랜드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 세상을 고백했다. 주일에 두 번 그리고 주중에도 종종 목회자들은 적어도 한 시간 남짓 군사적 성공이나 패배, 선거 결과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들, 범죄와 이에 상응하는 처벌들을 강단에서 말했다. 17세기 말 가장 유명했던 목회자이자 앞서가는 저널리스트였던 마더(I. Marther)는 뉴잉글랜드에서 보편적이었던 질투와 교만이라는 죄악을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했다. 바로 "환란의 날이 목전에 있다"고 설교했다.

그가 경고한 "환란"은 바로 1675년 6월 미국 인디언부족(the Wampanoag)이 매사추세츠 스왈시 타운을 덮쳐 방화와 약탈 그리고 9명이 살해되는 사건으로 실현됐다. 그리고 인디언 부족 연합 세력은 또 다시 같은 해 8월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을 완전히 도륙하다시피 덮쳤다.

인디언 부족 연합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 이제는 보스턴까지 10마일도 남지 않는 형국에까지 치달게 됐다. 그러나 16개 주 식민지 연합군과의 수차례에 걸친 전투들로 인디언 부족들도 대부분 죽었고 드디어 인디언 추장까지 잡혀 처형될과 동시에 전쟁은 종결됐다. 하지만 인디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식민지 연합 역시 수많은 사상자들을 냈고, 12개 마을들은 완전히 파괴됐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인디언과의 전쟁은 바로 죄인에게 임하는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였고, 많은 목회자들이나 기자들은 이를 말하고 기록했다. 그중에 단연코 마더는 발군의 글 솜씨를 보여준다.

물론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했는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까지 곁들여 있다.

마더는 식민지 연합 세력의 승리를 "하나님의 손길은 전쟁의 시작과 연장에 함께 하신다"고 제목을 달고, 뉴잉글랜드가 전쟁에서 이겨 이제 환란이 마무리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미흡해 구원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기록을 남겼다.

또한 그는 한 사건, 식민지 타운에서 한 집이 인디언들에게 둘러싸여 방화와 살해라는 위협에 처해진 상황을 보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한없이 자비라는 양면으로 사건을 말해준다. 바로 식민지 연합군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에 구출될 수

도 있지만, 무고하게 희생된 가족이나 친지, 친구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이 모든 운명을 책임져줄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마더의 보도는 마치 서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의로운 보안관이 가마대의 등장에 따른 구원을 나타내는 전형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영웅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한다. 따라서 뉴잉글랜드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한다. 그래서 인디언 부족이라는 세력을 이용해 자신들을 심판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즉 교만과 시기, 방종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3면으로 계속)

열정적 신앙생활로 하나님 뜻에서 도피 말아야

리더십저널, 뉴라이프펠로십교회 스카지로 목사의 정서적 불건강 영성 10증상 소개

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도래한 것을 느낀다. 계절의 변화를 따라 우리 감정도 다소 번덕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소그룹 구성원들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일이, 남은 한해를 풍성한 열매로 마무리 하는데 상당

한 도움이 된다. 교인이나 소그룹 구성원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염두에 두면 점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열 가지 증상은 아래와 같다:

부정적 감정, 정당한 욕구, 과거 영향력 부정 말 것 양분된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소홀 사역집중 금지 갈등/상처/약점/실패/한계 인정하고 타인판단 엄금

1.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다.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인 경우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건강한 삶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하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분노나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에 대해서 멀리해야 할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지니시는 성품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감추거나 부정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분의 형상을 왜곡하는 셈이다.

3.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하다.
인간이 갖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사람의 욕구는 죄로 오염됐다. 죄로 오염된 욕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건강한 갈망들을 심어 주셨고 그 감정이 적절하게 자라라고 열매 맺도록 하셨다.

4.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하다.

우리는 거듭나면 과거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성화의 과정은 과거로 돌아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파괴적이고 나쁜 습관을 깨뜨리고 거거서 해방되는 것이다.

5.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하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일하는 날이다. 이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일들은 매일 출근하기 전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일할 때나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양분된 신앙생활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9면으로 계속)

ATS 평화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 3. 박사: 목회학(D.Min)
-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 6. 평생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ABHE, TRACS, ATS, TRACS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HERESY 2면
이단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다룰 뿐...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6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엄예선 박사

풀러신학대학원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



〈이머징 문화와 설교〉 세미나 공개강좌
Preaching Requires Paying Attention:
Scripture, Context & Power

- 강사: **Mark Labberton** 교수 (풀러신학교 총장, 설교학) 통역지원 됩니다.
- 일시: 10월 19일 (월) 8am - 3pm
- 장소: 풀러신학교 Payton 301호 강의실
- 참가비: \$50
- 온라인등록: kadmin.weebly.com/word
- 전화/이메일등록: KDMin사무실 (626.584.5651/kadmin@fuller.edu)
- 등록마감: 10월 14일(수)까지

학위과정 개요

- 3개의 집중분야를 중심으로
- 코스웍: 40학점 - 논문: 8학점
- Tuition: 학점당 \$415
- 재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행보조금 지급

목회자 계속교육 세미나

"목회자를 위한 성서지리" (11/2, 박준서 교수)

"묵상과 설교를 돕는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11/9, 김세운 교수)

등록비: \$50 (두 강의 합쳐서)



시론

사슴나무골에서(22): 기독교인이 겪는 마지막 때의 환난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인류의 구세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처형한 세상은 지난 2,000여년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음을 역사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문에 납치, 강간, 화형, 참수는 보통이었고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로 삼거나, 굶겨서 아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일은 시대와 지역 상관없이 가장 보편적인 처형방법이었습니다. 한 연구 기관에 의하면 주님의 사

건이후 오늘날까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무려 4,300만명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최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무려 165,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이나 인종 갈등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같이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전 세계의 20억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10퍼센트인 2억명이 현재 핍박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아예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10퍼센트인 2천만명은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가장 핍박이 심한 지역은 무슬림 회교권 나라들이며, 아프리카 수단 같은 나라는 지난 십수년 간 이미 200만명 이상의 인명을 살상했는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밖에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집트는 기독교에 대한 집단적 핍박과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슬람 극단 테러리스트 집단 IS가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에서만 이미 수 만명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대외적인 체면 때문에 공개처형은 하지 않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폭력에 희생되어 죽는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매년 10만명을 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숫자는 10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증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미국 오리곤 주의 한 커뮤니티칼리지에서 8명의 젊은 대학생들과 1명의 교수가 범인이 난사한 총에 죽고 9명이 중상을 입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해서 온 세계를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자기 사살할 대상을 선정한 방법이 기독교인 인지를 물어보고 죽였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모든 기독교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총을 쏘기 전에 "잠시 후에 너의 창조주 신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증언은 그 사악함에 당면한 슬픔을 넘어 수많은 성도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중요범죄는 또 다른 모방범죄를 양산할 수 있어서 특히 주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총기를 무려 13정이나 합법적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총기규제 문제까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내 집단 총격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모방범죄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6월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 있는 역사적인 흑인교회(AME교단)에서 21세의 청년이 총을 난사 역시 9명을 사살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기독교인 집단을 향한 폭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청교도의 나라 미국마저 안심할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복음주의 유권자 층마저 심하게 분열되어 그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극단적 복음주의 단체들이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진보적 민주당 대선후보로 온건 중도적이며 전통적 가족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힐러리 후보마저 동성애를 진차 지지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의 정치 현황은 점점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와 가르침과는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주지사의 서명으로 안락사마저 허용함으로써 생명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장하는 모든 기독교 교회들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말세의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단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

Christin History, 필립 젠킨스 교수가 밝히는 '영지주의' 의 변형 과정 소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이 말은 대다수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반영하지만, 영지주의자는 이 말을 더 멀리 끌고 가려 한다.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물질세계는 타락한 창조물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전적으로 잘못된 창조물이다. 신-적어도 선하고 참된 신-은 물론 역사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 탈출(Escape)은 오직 내면에서 해방의 필요성을 깨닫는 소수의 무리에게만 가능하다. 지혜 곧 소피아(Sophia)는 영적인 사람들 곧 엘리트층을 위한 것이다. 지혜는 이들을 물질적인 것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매한 인간들, 곧 우주 사기극의 피해자들과 구별 지어주는 것이다. 대중은 잠자고 있을 테지만 진정한 영지주의자는 깨어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학자 필립 젠킨스 교수(P. Jenkins)는 이단인 영지주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했던 이념들이 오히려 인간의 역사와 함께 생존해오고 있다고 기술한다(The Heresy that Wouldn't Die: Though Gnostic sects faded in the early church, Gnostic ideas have had a long shelf life).

영지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로마 제국 후기에 영지주의의 비밀 복음서들이 금지 당했다며 개탄해 마지않고 있지만 말이다. 영지주의의 중요한 주제들은 예컨대, 유대교 카발라 전통 속에도 살아남아 있다. 카발라 전통은 신적 선(divine goodness)이 담긴 그릇들이 부서지면서 세상이 창조됐다고 설명한다. 카발라교도들은 신을 향한 신비적 상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티쿰 올람'(tikkun olam)의 달성, 곧 부서진 세계의 회복을 서약한다.

기독교 세계를 봐도 알 수 있듯 기독교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이단



19세기 말부터 영지주의 문서 원본들이 다시 한 번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896년부터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3세기 "피스티스 소피아(Pistis Sophia)"의 번역판을 읽을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은 영지주의 신화를 완벽하게 개관하고 있다. 여러 신장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이 문서가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 제자들이 예수와 주고받은 긴밀한 교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작품이 당시에 준 충격은 나그 함마디 문서들과 도마복음이 수십 년 뒤에 주게 될 충격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1970년대가 되기까지 세계는 이런 급진적인 견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피스티스 소피아"를 비롯한 여러 문서들은 진보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위계적 교회의 족쇄에서 풀려난 새로운 기독교를 구축하고자 했던 시대에 굉장한 매력을 풍겼다. 이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른 최

20세기 영지주의, 신지학운동 사이언톨로지 심리학으로 이어져 지혜 "내면적 해방 필요성 깨닫는 영적 소수 엘리트 위한 것" 주장

을 억압한 결과 영지주의의 관념들은 변경 너머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 같은 지역들로 퍼져갔다. 영지주의적 이원론 관념들은 바울파(Paulicians)와 마니교(Manichaeans) 같은 운동을 통해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번창했다. 바울파나 마니교는 빛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악한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가르쳤다.

이따금 영지주의의 관념들은 유럽으로 역수입되기도 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카타르(Cathar) 또는 알비파(Albigensian) 운동인데, 이들은 13세기 프랑스에서 정벌군에 의해 대학살에 가까운 억압을 받았다. 카타르교도는 이 세상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완전한 사람들"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오렌 영지주의의 관념을 충실하게 따랐다. 이렇듯 새롭게 부흥한 옛 운동들은 기독교의 복음서들에 주로 의존했는데, 이 복음서들에 나오는 비유들을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석했다. 그렇지만 초기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들은 "전도자 요한의 책(Book of John the Evangelist)" 같은 자기네 성경을

쓰기도 했다.

기독교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와 교리에 대항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취했으며, 이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을 돌보이게 해주었다. 카타르교도는 로마가톨릭교회를 문자 그대로 사탄의 회당이라며 거부했다. 가톨릭교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을 창조하고 구약 성경에 그 잔인한 악행이 세세하게 기록돼있는 미혹의 신을 좇는다는 것이었다. 평범한 가톨릭교도들이 양떼인 것은 고분고분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라는 의미에서였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유럽이 위협적인 사회가 돼가자, 빛의 자녀(영지주의자)들은 교회 그리고 기성 교회의 하나님과 악한 사회를 노골적으로 동일시했다. 낭만주의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회 자체의 탐욕과 무지의 환영인 거짓 신 늙은 노보대디(Nobodaddy), 질투의 아버지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보았다. 블레이크는 거인 엘비언(Albion)의 영이 멸망하고 분열되는 완전한 영지주의의 신화를 보여주었다.

세상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유리즌(Urizen) 세력이 지배하고 이 세력은 로스(Los)라는 혁명적 상상력의 도전을 받는다. 오로지 로스만이 엘비언이 상실한 신성을 기억하고 있고 그만이 엘비언을 깨울 수 있다.

19세기 프랑스 시인이자 비평가인 샤를 보들레르는 반역의 논리를 자연스런 결론까지 이끌고 갔다. 무섭고 불의한 사회와 동맹을 맺은 교회가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한다면, 그 교회로부터 반역자로 중상을 당한 해방자, 사탄을 찬미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초의 제자들의 잊혀진 진리-못된 교회 관료주의가 억압했던 교리들-를 되찾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1909년에 쓴 글에서 프란시스 스위니는 이렇게 주장했다. "고대 영지주의자들은 교육받은 여성들, 여성해방 운동의 초기 개척자들, 기존 입장들의 진실성과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증적인 팔들, 가장 지성적인 여성들이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령의 여성성을 믿었던 원래의 믿음을 충실히 지켰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p>	<p>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p>
---	---

하나님의 섭리, 세상에서 심판과 자비로 발현

(1면에서 계속)

또한 그는 지나친 죄악과 교만은 심판까지도 부를 수 있는 “극단”으로 치닫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제시한다.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그리고 갱신하도록 만드시려는 의도”로 나중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시게 하신다고 말해준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1681년 미국 저널리즘에 대한 다음 단계를 위한 메사추세츠 목회자들 모임이 열리게 됐다. 특히 “하나님 섭리를 나타내는 사건들, 즉 심판, 홍수, 지진, 벼락과 천둥, 탕자, 마녀, 악마에게 사로잡힘, 알만한 죄인들에게 임한 심판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과 기도 응답”에 대한 주의 깊은 보도 지침을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에게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마디로 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웅변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의 모임은 수년이 지나고 나서 프리랜서 기자들이나 편집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1. 각각의 목회자들은 지역을 담당하는 주제 기자들처럼 보도의 책임을 갖고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다. 2. 허구나 상상으로 논평을 삼가하고, 목격자의 증



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도한다. 3. 기사작성 후 책임을 지고 발행을 할 수 있는 편집자를 찾는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동하신다는 “주권”사상은 저널리즘을 의미심장하게 만들었다. 목회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기에 적절한 대상들이었다. 강단에서 뿐 만 아니라 신문 지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 배경 안에서 1690년 벤자민 해리스(B. Harris)는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신문(Domestick Intelligence)을 런던에서 발간했다. 해리스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문을 발행하면 투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투옥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었다. 해리스는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 다른 신앙인들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1690년 9월 25일 미국에서 첫 신문을 발간했다(Publick Occurrences Both Foreign and Domestick). 4페이지 지면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명백한 기사들로 넘쳤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논평을 달아 더욱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다. 해리스는 또한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의 국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보도했다. 즉 식민지를 둘러싼 인디언, 프랑스, 영국 그리고 캐나다와의 관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방들을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단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다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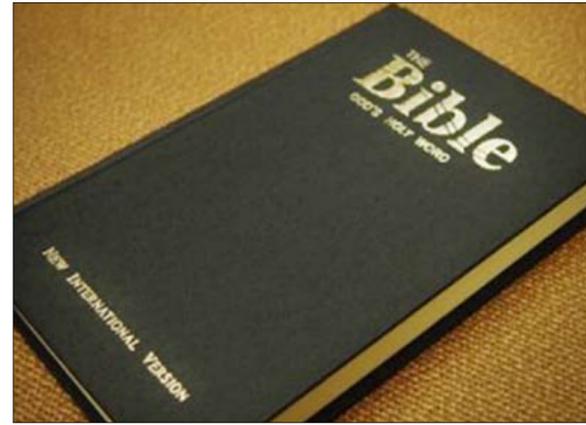
(2면에서 계속)

이 진리는 4세기가 되면서 기독교회의 남성 제사장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됐다.”

20세기의 첫 4반세기에 영지주의가 주목을 받았던 많은 이유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척 낯익다. 영지주의는 많은 사상가들이 문체시했던 요소들로부터, 특히 강력한 역사비평의 대상이 되었던 구약 성경으로부터 해방된 기독교를 제시했다. 또 신자들은 고등비평자들이 신약 성경이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후대의 픽션이라고 주장했으니 신약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도 됐다. 영지주의 렌즈를 통과한 기독교는 역사에 뿌리 내린 종교에서 일종의 내면의 심리적 깨달음으로 탈바꿈했다.

20세기 영지주의는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명시적인 영지주의 사상들이 많은 비교 집단들과 신형 종교 운동들, 특히 신지학 운동(Theosophical movement)에서 파생한 운동들에 영감을 주었다. 현대 비교의 사례를 한 가지 들자면, 수면과 망각과 재각성이라는 노골적인 영지주의 신화를 제공하는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가 있다. 사이언톨로지는 한때는 누렸지만 일초적 존재가 MEST(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의 미혹에 빠지면서 잃어버린 막강한 영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신자들을 가르친다.

심리학 역시 영지주의의 사상을 전파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심리치료사이기도 하지만 신비주의자이기도 한데, 고대 영지주의의 사상가들과 “죽은 자를 위한 일곱 설교(1916)”같은 작품들



에 들어 있는 신화에서 많은 것을 끌어왔다. 환자가 스스로 환상과 의존의 세계에 갇혀있음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방식의 현대 심리치료법의 근저에도 영지주의의 근본 가설들이 깔려 있다. 환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들의 기억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생명을 시들게 하는 수면과 망각과 환상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대 영지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근경에 처한 영혼들이 낮은 물질세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분향으로 돌아갈 길을 찾으려고, 곧 자신의 참 정체성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여겼다. 영지주의의 구원 개념은 심리학자들의 통합(integration)이나 개별화(individuation)의 개념이 됐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고대의 종교

운동들을 학문적으로 재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종교적인 형태로도 되돌아왔다. 가장 유명한 이름은 일레인 파겔스(Elaine Pagels)인데, 그녀의 핵심 저서인 “영지주의의 복음서들(1979)”이 제시한 종교적 종합은 프란시스 스위니 시대에 제시된 종교적 종합과 아주 유사하다. 파겔스도 마찬가지로 탈역사화되고 심리학적이며 철두철미 여성친화적인, 그리고

불교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 기독교를 제시했다. 파겔스에게, 그리고 나중에 카렌 킹(Karen King) 같은 저자들에게, 이런 관념들은 “영지주의”라는 딱지가 붙은 주변적인 대안물이 아니라 고대 예수 운동의 진정한 핵심이었다. 고대 영지주의 복음서들은 2003년에 댄 브라운이 “다 빈치 코드”에서, 그런 운동들은 기독교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심지어 이 소설에서 예수의 후손임이 입증되는 여주인공의 이름은 영지주의의 영감을 받은 소피(Sophie)다. 영지주의의 관념들은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리는 인물을 사랑하지만 성경이나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너머에 무언가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다.

오늘날 그 옹호자들이 취사선택해 재포장한 영지주의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고, 그것은 “진정한” 고대 성서들을 그 버팀목으로 삼고 있다. 현대 영지주의의 옹호자들은 영지주의는 계속 잠자고 있는 평범한 신자들로서는 결코 그 진가를 이해할 수 없는 원래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실 분임을 확신한다.

드디어 1690년 9월 25일 미국에서 첫 신문을 발간했다(Publick Occurrences Both Foreign and Domestick).

4페이지 지면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명백한 기사들로 넘쳤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논평을 달아 더욱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다.

해리스는 또한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의 국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보도했다. 즉 식민지를 둘러싼 인디언, 프랑스, 영국 그리고 캐나다와의 관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방들을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이다.

결론으로, 청교도들은 모든 인간들의 행위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최초의 신문에는 그러한 신앙이 담긴 보도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영국 왕실 관료나 담방 관료들은 더 이상의 신문 발행을 금지했다. 만약 더 발간하면 어찌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해리스에게 보냈다. 해리스는 마치 못해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뉴잉글랜드로 돌아가 더 이상의 신문을 발간하지 않았다.

원로칼럼

필자의 경우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강골도 아니었고 체력도 장사가 아니었다. 거기다 영양공급 부실로 허약한 유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청년기는 고달픈 고학생활의 연속으로 기를 펴지 못한 채 보내야 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회의 청빙을 받고 고생이 끝나려니 생각했지만 필자를 초빙한 교회 여건은 예수가 너무나 부실했다. 다시 말하면,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

필자 나이 32세 되던 해 부목사 생활을 접고 호남 굴지의 교회인 양동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부형뻘 되는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 필자를 섬겨주었지만 처음 맞은 단독목회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경험 부족에다 생소하고 버거운 목회는 필자를 억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기도회 인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저녁 12시가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곤 했다. 대소 심방도 승용차가 없던 때여서 걸거나 버스를 이용했고, 주일 낮잠 예배 설교,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설교, 심방설교, 돌잔치, 생일잔치, 회갑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 하나에서 열까지 담임목사가 져야 할 특권이었고 짐이었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소화불량 증세에 두통이 겹치고 불면증 증세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목회는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예산이 배가되고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첫 목회여서 유연성은 없었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달음질한 목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보람차다. 목회지를 서울로 옮긴 뒤의 목회생활은 지방목회에 비해 훨씬 더 각박하고 고단했다. 이유는 교회가 내분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백여 명 남짓한 교인들이 마치 정병처럼 양 나뉘어 사사건건 맞서는 꼴은 가관이었다. 그 틈새에 끼어 균형을 잡고 조화와 조율의 과제를 풀고 한계의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교회 성장축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자에게 돌아온 것은 과로와 스트레스 여진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총신교회 목회는 2010년 말 목회를 내려놓는 날까지 안식년 한 번 없이 계속됐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대령교회를 일궈낸 것도 아니고, 성공 목회의 표지판을 세운 것도 아닌데 35년 세월을 고스란히 바쳤다.

필자가 지킨 가장 큰 목양원칙이 있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화려한 교회, 폼나는 목회자 밑에서 훈련 받은 일도 없고, 신학과 학문의 세계에도 일천한 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최선목회였다. 자녀들에게 일러준 가훈도 ‘최선을 다하라’였다. 말씀 선포와 강단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다. 합부로 강단을 내돌리 않고 지켰다. 외래강사를 아무나 세우지 않고 필자의 목회철학과 방향에 도움 될 사람들을 선별했다. 열린음악회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연자들을 고도화하고 선별한다. 허물러 목양 강단에 아무나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안된다라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도 새벽기도를 인도했고, 주일 낮과 밤, 수요일 저녁, 목요일 연합 성경공부, 금요일 구역장 교육, 금요일 저녁 철야기도회도 직접 인도하고 이끌었다. 헌신예배 강사로 나가는 일, 부흥회 인도, 세미나 강사 등 외출을 삼갔다. 그것은 목회자인 필자 중심으로 교회가 자리를 잡아야 하고 성장 동력의 중심축이 목회자여야 했기 때문이다. 휴가도 안식년도 반납하고 오로지 목회에만 올인했다. 되돌아보면 미련하고 우직스런 목회일 생이지만 후회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실 분임을 확신한다.



박중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목회자와 건강(1)

섬없이 달려온 길

육체는 정신을 담은 그릇이다. 육체가 허약하면 정신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면 육체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목회를 정신노동이라고 부르지만 따져보면 체력과 의 싸움이기도 하다. 예배, 설교, 심방, 상담, 행정, 선교, 교육, 그 어느 것 하나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이 어렵다.

필자의 경우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강골도 아니었고 체력도 장사가 아니었다. 거기다 영양공급 부실로 허약한 유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청년기는 고달픈 고학생활의 연속으로 기를 펴지 못한 채 보내야 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회의 청빙을 받고 고생이 끝나려니 생각했지만 필자를 초빙한 교회 여건은 예수가 너무나 부실했다. 다시 말하면,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

필자 나이 32세 되던 해 부목사 생활을 접고 호남 굴지의 교회인 양동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부형뻘 되는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 필자를 섬겨주었지만 처음 맞은 단독목회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경험 부족에다 생소하고 버거운 목회는 필자를 억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기도회 인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저녁 12시가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곤 했다. 대소 심방도 승용차가 없던 때여서 걸거나 버스를 이용했고, 주일 낮잠 예배 설교,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설교, 심방설교, 돌잔치, 생일잔치, 회갑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 하나에서 열까지 담임목사가 져야 할 특권이었고 짐이었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소화불량 증세에 두통이 겹치고 불면증 증세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목회는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예산이 배가되고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첫 목회여서 유연성은 없었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달음질한 목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보람차다.

목회지를 서울로 옮긴 뒤의 목회생활은 지방목회에 비해 훨씬 더 각박하고 고단했다. 이유는 교회가 내분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백여 명 남짓한 교인들이 마치 정병처럼 양 나뉘어 사사건건 맞서는 꼴은 가관이었다. 그 틈새에 끼어 균형을 잡고 조화와 조율의 과제를 풀고 한계의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교회 성장축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자에게 돌아온 것은 과로와 스트레스 여진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총신교회 목회는 2010년 말 목회를 내려놓는 날까지 안식년 한 번 없이 계속됐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대령교회를 일궈낸 것도 아니고, 성공 목회의 표지판을 세운 것도 아닌데 35년 세월을 고스란히 바쳤다.

필자가 지킨 가장 큰 목양원칙이 있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화려한 교회, 폼나는 목회자 밑에서 훈련 받은 일도 없고, 신학과 학문의 세계에도 일천한 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최선목회였다. 자녀들에게 일러준 가훈도 ‘최선을 다하라’였다.

말씀 선포와 강단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다. 합부로 강단을 내돌리 않고 지켰다. 외래강사를 아무나 세우지 않고 필자의 목회철학과 방향에 도움 될 사람들을 선별했다. 열린음악회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연자들을 고도화하고 선별한다. 허물러 목양 강단에 아무나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안된다라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도 새벽기도를 인도했고, 주일 낮과 밤, 수요일 저녁, 목요일 연합 성경공부, 금요일 구역장 교육, 금요일 저녁 철야기도회도 직접 인도하고 이끌었다. 헌신예배 강사로 나가는 일, 부흥회 인도, 세미나 강사 등 외출을 삼갔다. 그것은 목회자인 필자 중심으로 교회가 자리를 잡아야 하고 성장 동력의 중심축이 목회자여야 했기 때문이다. 휴가도 안식년도 반납하고 오로지 목회에만 올인했다. 되돌아보면 미련하고 우직스런 목회일 생이지만 후회는 없다.

(계속)

제 41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41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15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퀸즈한인교회(이규섭 목사 시무)
89-00 23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 672-1150

- ◆ 총대파송 : 교역자 대표 1인, 평신도 대표 1인 (사모는 평신도대표로 인정 안함)
- ◆ 참고사항 :
 1. 선거사전등록제를 실시합니다 (10월 5일(월)~ 10월 21일(수) 오후 5시까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투표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선거인 사전 등록을 해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당일 가입이 허락된 교회는 차기 회기부터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3. 모든 회원교회는 41회기, 42회기 회비를 납부하시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년 \$120)
 4. 회원의 권리는 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등록에 의거하여 서기 호명서 출석이 확인된 회원에게만 있습니다.
 5. 투표는 따로 마련된 투표실에서 합니다.
 6. 회비는 등록 일까지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 총회 당일 등록할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비는 \$150 입니다.
 8. 불법선거 운동과 유인비어를 포함한 모든 행위는 본회 정관 제 2장 3항에 의거 징벌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 새로 교협에 가입하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교협 website나 교협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선거인 등록방법: 교협 website, 교협 E-mail, 교협 전화, 직접방문

뉴욕교협 제 42회기 정·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공고



회장 후보
이중명 목사
교회: 뉴욕강성장로교회
교협: (현) 부회장
총무, 서기, 감사 역임



부회장 후보
이만호 목사
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교협: 신년하례만찬준비위원장
일벌루머대회준비위원장
협동총무 역임



부회장 후보
김홍식 목사
교회: 뉴욕능가본교회
교협: 서기, 부서기
협동총무 역임



평신도 부회장 후보
이상호 안수집사
교회: 뉴욕성결교회
교협: (현) 이사장

감사 후보

등록기간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장합니다.

* 입후보자 언론토론회: 10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협의회의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Tel: (718) 279-1414, Fax: (718) 279-5838
E-mail: nyckcg@gmail.com/ www.nyckcg.org

회장 이재덕 목사 총무 김희복 목사 서기 한기술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병홍 목사

투고 칼럼



나순규 목사

교회는 내 삶의 심장과도 같은데...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죄송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교회를 바라보며 우시는 주님 모습이 떠올라 화들짝 놀라 눈을 뜨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걸어서 다녔던 교회부터 내 인생에서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재밌게 보냈던 친구들과의 시간을 신앙생활의 결정체처럼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저 주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칠 때

면 더 두려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기까지 나도 그 속에서 자랐고, 일했고, 먹고 살았던 날들... 언제부터인가 제도권(Institutional)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속한 교회가 그 교회였고 내가 그 속에서 목사라는 타이틀로 일했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론 내 책임이 컸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라는 이름만 지닌 채 생명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 느껴질 때도 그나마 말씀대로 사는 단체와 교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자위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런데, 내가 사는 미국에서 그 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에도 침묵하거나 아예 성경을 들어 그것이 성경적이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성애를 지나 동성결혼까지도 성경적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원리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그 법이 통과되는 데 일

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욱이 그 사조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주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원칙에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분명하기를 동성결혼 찬성자들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항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도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약한 점을 이해하고 돕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능력도 갖지 못한 채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거나 애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비겁하게 고개를 돌리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받는 박해”를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에서 화려한 음악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고 해도, 굳건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해도 공의를 잃어버리고 맘모니즘이나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라면 주님은 그 안에 안 계시겠습니다.

나는 요즘 오늘의 교회의 모습 앞에서 심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동성애 어울림에 유가적 교회를 시도하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명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따라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데 뜻이 비슷한 사람도 여전히 기존교회의 화려함과 전통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서인지 입도 함께 닫혀 있습니다.

‘예배는 삶이다,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듯 하지만 그런 교회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엄청난 파워를 느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그저 교회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주일 중심의 모임에 만족하면서 보내버리는 세월이라면 주님도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분통해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큰 목소리를 내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분명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강령과 함께, 미국의 동성결혼 연방 합법화로 인하여 이제 교단들은 분명한 신앙의 노선을 보여야 합니다.

교단은 교회들의 중심이라 여겨 집니다. 이 교단이 다른 일에 아무리 큰 성과를 내고 화려한 일을 해낸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순간을 무너뜨리면 그것은 세상적인 단체나 주님을 모독하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의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은 바른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이메일: soon_na@daum.net

푸/른/초/장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한 청년이 재즈의 본 고향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 가기 위해서 유람선을 탑니다. 약 10일 정도 걸리는 여행으로 유람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유람선 탑승권을 사는데 지출하고 나니, 자신의 호주머니에는 얼마 남지가 않아서 식사를 사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스낵과 치즈를 샀습니.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스낵과 치즈를 먹습니. 3일 동안 식사 시간마다 유람선 식당으로 향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서 스낵과 치즈를 먹습니. 4일째 되는 아침에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혼자서 스낵과 치즈를 먹기 위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유람선에서 사귄 한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청년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청년에게 유람선 티켓을 달라고 합니다. 청년이 유람선 티켓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건네주자, 이 사람이 청년에게 티켓을 보여주면서 티켓 뒷면 맨 마지막 줄에 써 있는 것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

다. "All Meals Included, 모든 식사 포함."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지냈습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전부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합니다. 또한 자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축복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소망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함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요일4:9).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에서 임재 하셔서 깨닫게 하여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2:10, 1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께서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확신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고 말해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뿌리입니다.

<7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로마서 5:5-8)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와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자들이 불륜행위를 하고 싶다고 비밀 가입 신청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하였는지 그만 들롱이 났습니. 이곳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가입을 하였던 사실이 밝혀져서 미국 전국에서 교회의 직분자들 400명이 사임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음날부터 죄를 짓지 않아도 살아갈 것 같은데 현실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인이 아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주시고, 선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

되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결과들을 말하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주어진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째, 성령입니다(v.5).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은 다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주안에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에서는 가을 체육대회를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Alley Pond Park에서 목사회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을 초대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운동하면서 친교하면서 맛있는 점심과 경품추첨과 선물이 준비되었으니 모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가을체육대회

일시: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Alley Pond Park

“맛있는 점심, 경품 추첨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orean-American Clergy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http://www.kapastors.org/>

회장: 이만호 목사 총무: 김민규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 내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중)

지금 미국과 한국은 어느 곳에 가도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처럼 “아름답고, 순수하며, 깨끗하게” 지켜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교육환경과 사회 문화가 낳은 결과는 2015년 총기사건들만 조사해보도 알 수 있는데, 무려 296건의 총기사건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무고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남은 가족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중 큰 총기사건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2015년에 이미 서너 가지가 됩니다.

학생들의 머리에 총을 쏘서 9명을 죽이고, 나머지 크리스천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다리에만 총을 쏘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학교 안에는 방어할 수 있는 총기 하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절제(Gun-control)를 하면 이런 사건을 줄일 수 있다”라고 계속 외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번 오리건주 사건입니다.

이 대학교는 캠퍼스 내에서 총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들과 학생들은 아무도 총이 없었고 학교의 유일한 보안 요원마저도 총이 없어서 범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학생 중에 제대군인인 Chris Mintz가 총을 여러 번 맞으면서까지 범인이 나가서 더 총을 쏘지 못하도록 문간에서 막을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졌는지 나중에 꼭 경찰에 이야기하라”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총기사건들의 공통점 몇 가지

지난 20여년간 일어났던 총기 사건의 동기들을 조사한 결과 모든 총기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범인들은 대부분이 다 정신질환에 먹는 약(psychiatric drugs)이나 또는 Drug(마약) 복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들 중 mass gunfire(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쏘 죽이는 것)를 한 범인들 중에는 죽이기 원하는 대상들이 이미 그들 맘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예측입니다.

비록 지금의 사회 문화 현상이 기독교나 유대교인들을 목표 삼고 있다는 것을 미디어는 이

청년이름은 Muhammad Youssef Abdulazeez로 총 외에도 숨겨 들어온 무기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만 지난 3개월간 터진 이번 오리건 총기 사건이, Charleston교회, 그리고 해군대의 총기사건만 보더라도 범인들의 동기는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거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키워진 미국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놓치면 안되는 진짜 이슈

미디어와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숨겨거나 또는 거의 왜곡되게 보도하면서 “총기규제(Gun-Control), 총을 소유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Gun-Control”을 정치적 이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10월 1일 오리건 주 대학교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겠다고 열변을 토해낸 만큼

미국내 총기사건의 해결책은 ‘총기규제’ 법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에 기반 세운 국가로 돌아가는 것

진정 “Gun-Control(총기규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겨난 사건일까요?

사건과 범인의 배경 파악
9월 30일 오리건 주에 있는 Umpqua Community College에서 총격 사건으로 9명의 크리스천들이 머리에 총을 맞아 살해되고 비기독교인들은 7명이 다리에 총을 맞고 부상당했습니다. 그 외 부상당한사람까지 하면 2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는 풀타임 학생들이 3,300명에 파트타임 학생들이 16,000명쯤 있습니다.

당시 죽은 척하고 사건을 목격했던 Kortney Moore의 말에 의하면 26세의 범인인 Chris Harper-Mercer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모두 다 일어나라고 한 후에 종교가 무엇인지 한 사람씩 물어보고,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만 “오늘이 너희에게는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곧 너희 하나님을 만나게 될거니까”라면서 크리스천

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동기

여러 뉴스들이 보도했지만 범인이 범행 이후에 자살을 했기에 죽은 범인의 범행 동기를 정확히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범인 정년의 소설 미디어에는 친구가 2명밖에 없었고 그중 한명은 이슬람 테러를 지지하는 친구로서 유대인들 또는 이슬람의 적을 죽여야 한다는 중동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범인이 군대에 갔다가 1달 만에 다시 나왔어야 하는 이유나,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볼 때, 그는 다른 총기사건의 범인들처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기사건 때 Last name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18세 Smith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범인이 Smith보고 살려줄 테니, “대신 뒤에 가서 앉아서 내가

기해주지 않지만 오리건 총기사건 외에도 바로 지난 몇 가지 총기사건들만 봐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경에 터진 Charleston교회 안에 들어와 벌린 총기사건의 범인인 21세 소년 역시 약복용이 매우 심했음이 나중에 밝혀졌으며, 그가 교회에 들어와 모든 크리스천들은 죽어야 된다고 총을 쏘서 죽은 사람들은 목사님까지 합쳐서 무려 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사법부에서 “Hate Crime, 증오로 인한 총기사건일 경우가 높다”라고 조사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총기소유 절제가 절실하다!”로만 이끌어 갔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는 테네시 주의 해군부대에 숨어들어 총격을 한 24세의 청년은 4명의 해군을 총에 쏘 죽이고 자신도 잡히게 되자 총으로 자살하였습니다. 그때 총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총격전을 벌인 24세의

슈로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진짜 이슈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살아남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부패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제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남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금 미국인의 진짜 이슈를 해결하지 않아서 생겨난 결과물로 나온 열매중 하나는 이번 오리건 사건이나, 찰스턴교회사건, 그리고 해군부대 사건에서 죽은 희생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어두운 기억, 상처를 안고 살아야하는 가족들입니다.

둘째, 이 희생자들은 “크리스천”들이었으며, 또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키워진 해군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지난 3개월간 mass 총기사건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었으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미해군대였습니다.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llspsc0316@gmail.com

Q: 저는 나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우리교회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목사님보다 평신도지도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신도 리더 격인 장로님이 중직을 받았으나 주일에만 겨우 얼굴을 비치고 모든 교회 봉사나 섬김에 뒷전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 성도들이 맡은 하지 않으나 속으로 장로님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리더이니 억지로라도 무조건 존경하고 따라가야 하는지요?

-나성에서 모 집사

A: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를 가진 교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선장과 선원의 잘못으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안타깝고 슬픈 사건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리더십이 얼마나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리더십이 아닌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한홍 목사가 쓴 거인들의 발자국을 보면 리더십이 아닌 것을 3가지로 말하

힘, 직함, 전문성이 리더십은 아니야...부족함 교훈삼아 기도해야

고 있습니다.

첫째, 힘을 가졌다고 그에게 리더십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계에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장악했다고 합시다. 강도에게 총이라는 힘이 주어져 있기에 다들 공포에 질려 그의 명령에 복종하겠지만 그 누구도 그가 가계 안의 사람들의 리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속의 많은 독재자들은 자신에게 폭력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3대 부자가 철권으로 통치하지만 그를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굴종할 뿐입니다.

둘째는 직함이 반드시 리더십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시장,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 장로 등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그를 자신의 리더로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함에 걸맞는 성숙하고 존경할 만한 신앙이나 인격을 갖추고 있고 따를 만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능력이나 인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리더의 자리에 앉아 철 지난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이들을 제일 혐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이민교회는 자질과 인격과 성숙도는 부족하고 교인들의 분이 되지 않는데 교회의 장로라는 이유로 교회의 직함이 마치 리더십 인양 담당목사의 목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부흥의 암초가 되는 경우가 보기보다 많습니니다. 교회의 직분은 중하면 중할수록 더 겸손이 낮아져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더욱 신앙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든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앞장을 서야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개척교회는 일군이 없어서 문제이고 기성교회는 일군 때문에 문제입니다.

셋째, 전문성이 곧 리더십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리더십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중국의 한신은 한고조 유방에게 전쟁터에서 몇 만의 군사들을 지휘하여 승리를 이끄는 데는 자신이 유방보다 훨씬 탁월하지만 그 몇만의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들을 다루는 데는 유방이 자신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방의 리더십에 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위의 리더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대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벤전5:5).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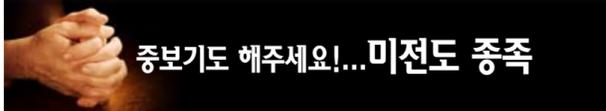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미얀마의 팔라웅(PALAUNG)



미얀마 내의 팔라웅족 여러 집단은 산(Shan) 주에 살고 있다. 일부는 타웅펑(Tawng-peng) 근처 북서부 한켠에 자리잡고 있고 다른 일부는 남쪽의 켄텡(Kengteng)에서 살고 있다. 12세기경 중국으로부터 온 산족이 미얀마에 자리잡기 전에 팔라웅족은 먼저 미얀마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팔라웅족은 루마이 팔라웅(Rumai Palaung), 리앙-랑(Riang-Lang), 골든 팔라웅(Golden

Palaung 또는 슈웨-Shwe), 실버 팔라웅(Silver Palaung) 등의 몇몇 소수부족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으며, 이 각각의 부족들은 자체 부족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족들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즉 집에서는 종족의 부족어를 사용하고 공식적이거나 공문서 작성, 또는 종교행사 등에서는 미얀마어나 산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미얀마(과거에는 '버마'로 불림)의 과거 역사를 보면 오랜 동안 쿠데타와 전쟁, 반란을 겪었다. 11세기 최초의 미얀마왕국이 세워진 이후 종족 분열과 정치 불안은 늘 있어왔다. 오늘날까지도 미얀마 군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동등한 대우

를 원하는 팔라웅족들과 같은 소수민족들을 군사력을 동원해 강제 통치하고 있다. 1994년 5월 산주에서만 무려 17만 이상의 전투가 일어났다. 힘없는 팔라웅족들은 원치 않는 이런 잦은 전투들에 강제로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삶의 모습

산(Shan)주는 협곡으로 나뉘진 산등성이들로 이루어졌으며 간혹 드넓은 초원지대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경작되지 않은 밀밭지대이다. 팔라웅족은 대대로 농부들이며, 화전 농법을 이용해 쌀과 곡물, 야채를 재배한다. 상업 작물로서 차도 키운다. 루마이족과 같이 고지대에 사는 부족들은 차 외에 약간의 경작을 하기도 하지만 지급작이 될 만큼의 양은 되지 못한다. 과거에는 소 떼를 이용해 차를 다른 지역으로 직접 운반해 팔았지만 근래에는 "소금에 절인 차(pickled

tea)"에 대한 전매권이 있어 쌀이나 소금, 말린 생선 등과 교환한다. 실버 팔라웅과 같이 저지대에서 살고 있는 부족들은 차보다는 쌀을 많이 재배한다. 이 지역에는 계단식의 관개논이 있지, 대부분 여전히 운작법을 많이 이용한다.

팔라웅족은 산족이나 버마인 등 다른 부족들과 어울려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혼인 등을 통해 서서히 동화됐다. 특히 팔라웅족은 부족 간의 혼인을 금기시하지 않고 이런 자유로운 통혼을 통해 산족은 자연스럽게 팔라웅족에게 문화적 영향을 크게 끼쳤다.

팔라웅족 대가족의 경우는 주로 타원형의 대나무 가옥에서 함께 살며 이 가옥은 지면에서 평균 약 6피트 높이의 기둥을 세워 지어진 것들이다. 어떤 집들은 그 길이가 100피트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집들은 대체로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경우이다. 팔라웅족은 채식위주의 식생활을 한다.

팔라웅의 사회문화는 연령과 성별, 부(副)에 따른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한다. 미얀마의 헌법에서는 정치기구들이 총리로부터 존장에 이르는 수직적인 행정력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단 1명의 단체장을 선출하며 개개의 지역 단위들은 전국적인 인구조사나 과세 부과 등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평범한 팔라웅족 시민들에게 있어 정부는 오래 전부터 화재, 기근, 홍수, 전쟁과 함께 5대 구적(五敵)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신앙

불교는 5세기경 미얀마에 들어왔으며 오늘날 대다수의 팔라웅족은 불교도다. 그러나 불교 뿐 아니라 정령숭배 신앙도 함께 지키고 있는데, 이들의 정령숭배는 "나트"(nats)라고 불리는 악령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원시적인 믿음이다. 따라서 "나트"를 달래고 기쁘

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노력해야 하며, 만약 "나트"가 기뻐하면 풍부한 수확과 건강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분노하게 되면 사람들은 해를 입게 된다고 믿는다. 또 이 악한 영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또 자연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서 홍수나 다른 자연재해를 막아줄 수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팔라웅족은 과거에 있었던 유혈 분쟁과 학살로 인해 오랫동안 상당한 아픔을 겪었다. 이제 그들에게 치유와 영적인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다. 미얀마에 있는 팔라웅족을 목표로 하는 선교단체는 없다. 팔라웅족의 토착어로 된 기독교 라디오 및 TV 방송과 기독교 문서자료들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리앙-랑(Riang-Lang)족만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다른 여러 방언으로도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경찰차에 'In God We Trust' 표어 부착 확산

최근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차 순찰차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는 문구를 새기는 일이 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8월 말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 경찰차의 보안관 대령 고포스가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던 중 생면부지의 한 흑인에게서 15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텍사스, 아칸소, 플로리다, 켄터키, 버지니아 주 등의 경찰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국의 국시(國是)다. 텍사스 주 차일드레스 시의 에드리아인 가르시아 경찰서장은 미 폭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료 경찰관의 사망 후 경찰의 단합을 위한 강령과 같은 뜻으로 이 문구를 경찰차 뒤에 붙였다"면서 "경찰의 생명을 겨냥한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국시만큼 우리를 잘 대변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공권력의 상징이라는 뜻에서 국시를 순찰차에 달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신론자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종교자유재단 같은 단체는 이 문구를 경찰차에서 떼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가르시아 서장이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꺼지라'고 일갈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국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순찰차에 붙인 경찰이 애국심과 경건함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신론자와 종교자유재단은 이 문구의 사용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국 건국 후 1864년 동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구는 1956년 의회 통과 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미국의 공식 국시가 됐다. 무신론자 등은 이를 폐지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미국 상원(2006년)과 하원(2011년)은 국시를 재확인했다.

또 다른 논란은 경찰의 국시 사용이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종교자유재단의 공동 설립자인 애니 로리 게일러는 "작년부터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국가적으로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경찰이 남들의 비판을 막을 목적으로 경건함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며 "경찰은 애국심과 독실함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신은 정부 바깥에 계신다"고 비판했다.

오리건 총기난사범 기독교인 클라 사실

1일 미국 오리건주의 업프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용의자 크리스 하퍼(26)는 그 학교 등록 학생임이 밝혀졌다. 머서는 학생들 가운데 기독교인만 클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머서는 평소 총기에 심취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은 '외톨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 총기 난사 사건들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더 많이 죽일수록 더 유명해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미국 CBS방송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머서는 영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다. 부친은 다른 여성과 결혼해 이복동생을 낳았고, 그는 모친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등지에서 오래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토런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그는 2009년 스위치 학습 센터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는 학습장애가 있거나 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다. 그가 총기류와 과거 유명 총기 난사사건들에 심취했다는 목격담과 정황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서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계정에 총기를 들고 찍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한때 미 육군에 몸담은 적이 있지만, 무슨 이유로 전역했는지는 알

려지지 않았다.

온라인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서도 총기난사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해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8월 미 버지니아 주에서 발생한 '생방송 기자 총격사건'의 범인인 베스터 플래너건에 관한 글에서 "플래너건처럼 고독하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이 피를 쏟을 때 전 세계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더 크게 주목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는 미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또 같은 날 밤 '4chan'이라는 게시판에 "만약 북서부에 있다면 내일 학교에 가지 말라"는 글을 올린 사람도 머서로 추정된다. 일부 네티즌은 그에게 범행을 부추기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온라인 활동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냈다",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것 같다"는 이웃들의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그는 인터넷에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는 글을 올린 적도 있었다.

'인터넷, 좀비 죽이기, 영화, 음악, 독서'를 자신의 취미라고 소개한 머서는 종교관에 '종교가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적은 뒤 '하지만 정신적(Spiritual)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묘사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기독교 신앙 여부를 물어본 뒤 기독교인을 골라 살해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머서는 이 사이트에서 '조직화된 종교를 싫어하는 모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면서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적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그는 증오로 가득차 있는 '성난 젊은이'(angry young man)"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한편 총격범 머서는 경찰에 봉투를 전하라며 학생 1명을 살려둔 것으로 전해졌다. 살아남은 16세 학생의 엄마 보니 산은 "총격범이 학생 1명에게 봉투를 주더니 교실 구석으로 가라고 하고는 '저 학생은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봉투를 확보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AP에 여러 장짜리 성명서가 든 봉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경찰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총기난사 현장에서 총알 7발을 맞으며 머서를 육탄 저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크리스 민츠(30)에게는 하루 만에 68만 달러(약 8억원)의 성금이 모였다. 인터넷에서 이뤄진 모금에는 2만여 명이 참여했다. 성금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게 민츠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사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머서는 총기난사 후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주교회의 앞두고 바티칸 고위성직자 '커밍아웃'

이훈·재훈·동성에 사목 문제를 논의할 가톨릭교회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총회가 4일 개막하기에 앞서 바티칸 고위 성직자가 3일 가톨릭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도전한다며 자신이 동성애자(게이)임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일하는 폴란드 출신의 크리스토프 올라프 카람사 신부(43)는 이날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폴란드의 한 주간지와 따로따로 가진 인터뷰에서 온 평생을 급속생활만 하도록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며 이제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7년간 로마에 거주해온 카람사 신부는 또 자신이 동성애자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라며 인생의 전부인 사제직 포기는 물론

교회가 자신을 순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여자도 아닌 남자에 빠져 길을 잃은 것으로 공격할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청이 설립한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쳐온 카람사 신부는 그러나 자신의 '커밍아웃' 결심은 교회가 이번 시노드를 계기로 동성애자들에 대해 눈을 크게 뜨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사제들 상당수가 동성애자인데 교회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채 광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AFP 등 외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페데리코 톰바르디 바티칸 대변인은 "시노드 총회 개막을 앞두고 충격적인 일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노드 총회에 적절하지 않은 압력을 주려는 것"이라면서 "카람사 신부가 더는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교황청립 대학교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세대 마지막 부흥사 이태희 목사 초청

대뉴욕복음화 부흥성회

다시 한번 뉴욕에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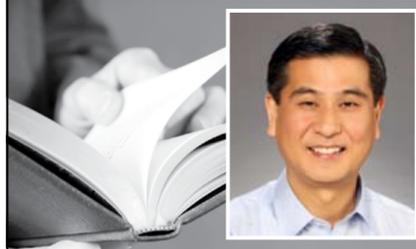
○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17일(토) 8:00pm
18일(주일) 5:30pm

○ 장소: 프라미스교회 (김남수목사 시무)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강사: 이태희 목사 (서울 성북교회 당회장)
대회장: 김승희 목사 (뉴욕대표 회장)

주최: (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뉴욕대표본부

<연락처> 사무총장: 김영환목사 (914-393-1450) / 서기: 송일권목사 (917-385-5021)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9)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고난의 끝, 방향의 시작 (1)

■ 콘스탄틴 - 최초의 기독교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다” 또는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였다”라는 표현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성도들이 법적인 보호아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세기 동안 지속되던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그로 인하여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스탄틴이 로마 시민들을 기독교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선언한 것이 아니다. 황제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로마 제국의 특혜를 받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유세비우스는 “교회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콘스탄틴의 정치적, 군사적 승리가 마치 기독교의 종교적 승리였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일하고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통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콘스탄틴을 대리인으로 세우셨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자 기독교의 승리이다. 콘스탄틴은 최초의 기독교 황제이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잠시 살펴보자. 디오크레티안 황제(284-305)가 사망한 이후 4명의 군왕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였다. 동방과 서방에 각각 두 명의 군왕이 있었는데, 콘스탄틴은 서방에서 속하였다. 그는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하여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등을 점령하여 서방의 실세가 되었

다. 그 후 서방의 정적이었던 막센티우스가 장악하고 있던 로마를 공격하여 승리함으로써, 콘스탄틴이 서방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힘을 얻은 콘스탄틴은 동방의 군왕 중 한명인 리키니우스를 만나 동맹을 맺었다. 기독교에 대한 뜻을 정하여 두 사람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것이다. 그 후 리키니우스는 동방의 같은 군주이자 기독교를 최후로 박해하던 막시민을 무찌르고

동방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콘스탄틴은 자기 여동생을 리키니우스와 결혼하게 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방과 서방을 장악하고 있던 두 사람의 관계에 머지않아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결국 314년에 전쟁이 일어나, 322년에 콘스탄틴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전체가 그의 수중에 들어갔다.

콘스탄틴이 제국을 평정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마지막 장인 10장은 역사 기록에 대한 성경 주석서와 같은 인상을 준다. 특히 티레에 세워진 웅장한 교회를 기념하여 행하여진 연설문을 삽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콘스탄틴의 통치와 고난을 받던 교회의 회복이 성경적으로 성취된 것임을 강조한다. 가장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콘스탄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혐오하는 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없애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삼았다. 그들

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렸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분명한 일을 함으로써, 덕행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능력자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와 감사를 드린다”(교회사, 10. 8).

■ 콘스탄틴 - 회심 사건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콘스탄틴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일에 치중하면서도, 실상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콘스탄틴의 생애”라는 책을 기록하여

다. 일부에서는 유세비우스의 견해와 정반대로, 콘스탄틴이 교회에 대한 관용을 베푼 것은 교회를 살리고자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기독교를 향한 진정성은 그가 경험한 회심의 성격에 달려있다. 그를 ‘최초의 기독교 황제’라고 부를 수 있는 여부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콘스탄틴의 회심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당시 로마를 장악하고 있던 막센티우스와 밀비안 다리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생겨난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 의문... 정치적 유익으로 기독교 국교화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 통과한 정금 같은 성도와 교회 사용

그의 신앙과 업적을 후대에 남기려 하였다. 보존된 기록에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콘스탄틴이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를 보았는데, ‘이 증표 안에 승리하라’라는 문구가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일인데, 하늘에 기록된 형상이 그려진 깃발을 손에 들고 나타나 깃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 확신을 받은 것이다. 신비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그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질문하였다. 콘스탄틴은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그 모습을 로마제국의 깃발로 사용하였고 병사들에게도 부착시켰다. 이 전쟁의 승리가 결국 ‘밀라노 칙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의 회심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그가 성령과 회개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회심이란 어떤 변화가 왔을까? 이로 인하여 박해가 종식되었다는 반가운 점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다. 그러나 순결한 모습을 지켜온 기독교가 콘스탄틴이란 권력자와 융합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심은 사도들의 신앙 전통에 의해서 세워지고 어려운 시련기를 지나면서 더욱 단단한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제대로 연단된 신앙인들이 교회의 전통을 지켜온 것이다. 힘도 없고 이념도 없는 그들이 지닌 복음의 파워는 대단하였다.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교회의 힘은 복음이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회심의 열매는 반드시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콘스탄틴 - 방황하는 교회

‘밀라노 칙령’은 사실상 새로운 황제가 선언한 관용령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콘스탄틴은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택할 때에 지닌 파급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이미 교회의 세력이 크게 확장된 상황에서 그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스탄틴은 교회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수장의 자격으로 교회를 다스렸다. 신앙적인 자유는 가짜 교인들을 생산하였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출세하기 위하여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교회와 성직자들이 온갖 특권과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상대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던 복음의 파워가 힘을 잃기 시작하였다.

2) 성경이 보인다 - 베드로전서 1장 7-9절; 욥기 23장 8-10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 또는 좋은 환경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을 ‘영적 용광로’에 집어넣고 ‘고난이란 고열’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성도’로 만드신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요,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성도와 교회가 복음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을 포기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슬픈 현실이지만, 오늘도 ‘복음 없는 고난’과 ‘고난 없는 복음’에 속아 자신의 신앙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계속)

그러나 교회가 콘스탄틴의 보호를 받으며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하였다는 아픈 역사가 있다. 콘

같은 성도’로 만드신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요,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성도와 교회가 복음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을 포기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슬픈 현실이지만, 오늘도 ‘복음 없는 고난’과 ‘고난 없는 복음’에 속아 자신의 신앙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계속)

가정사역 칼럼

이혼 후 치유를 위한 준비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우리는 이혼에 관해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결혼은 영적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결합하는 것인데 결혼이 깨어지면 관계가 깨끗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이 상대방 쪽에 끊어져 남아 있게 되기에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이혼상담 전문가인 린다

민틀 박사는 말한다.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은 실상 더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한 여성은 남편을 잃었고, 가정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고, 쓰레기 버려줄 사람과 자동차 고쳐줄 사람을 잃었고, 침대에 누워 함께 이야기할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

로 이사를 가야하기에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부부는 계획해 두었던 장래의 꿈을 잃은 것이다. 이혼은 이렇게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한부모가정의 아빠 중 한 사람은, “이혼 후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아빠 집과 엄마 집을 오고 가기 때문에 전배우자와 계속

만나야 되는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관 뚜껑을 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한 기분이 들어요. 또 주말에 아이들을 만났다가 다시 돌려보낼 때마다 그 옛날 겪었던 이혼의 상실감을 매번 다시 겪는 것 같아 무척 힘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치유 전문가들의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

치유를 위한 권면

- ① 상실한 것들을 기록하기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노트를 준비하라. 상실한 것들을 종류별로 구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이 도움

- 이 된다.
- ② 슬픔으로 인한 고통을 피하지 않기
어떻게든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매일의 감정을 적고 그 감정을 분출하면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감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 슬퍼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면, 혹은 슬픔에 빠진 채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결국 주위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만다.
- ③ 슬픔에 빠진 나머지 슬픔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라.
- ④ 회복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 ‘회복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컨대, 치유를 위한 소그룹에 참석하고 상담 받다가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치유모임을 찾아가

니면서 자신의 슬픔에 지속적으로 천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 행동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 버린다.

- ⑤ 기대치 조정하기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것에 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므로 정신적인 수용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체적으로도 쉽게 지치기 십상이다. 개별적 능력에 맞춰서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 고린도후서 5:17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 이메일: familykum@gmail.com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확신을 줍니다. 근심 중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슬픔 중에 계십니까? 곤고한 중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vv.6-8).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v.6).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빈민촌에 사는 한 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매달 20불씩 지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이는 내가 후원하는 지도 모릅니다. 서로 얼굴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후원합니다. 이 아이는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누군가의 후원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자신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후원자가 자신을 사랑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인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울은 세상의 사랑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행해 질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서 갈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을 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7월의 말씀처럼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살인자, 흉악범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목숨을 내어놓지는 못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당장 무고한 생명들을 참수형에 처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철장에 가두 물 속에 넣어 죽이는 이슬람교가의 무장단체들을 위해서 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은혜와 멀리 있었을 때,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중노릇하며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현재 겪는 모든 환난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문제를 만나게 되어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이 자라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현저하게 보인다. 기도는 만사해결의 열쇠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해 보라. 문제해결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

창세기 32:24-30을 보면 야곱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야곱은 팔족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거짓으로 누운 아비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므로 어머니의 주선으로 외가 있는 밧단아람으로 도망쳤다. 20여 년이 지나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20여 년 전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고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인간의 수단방법으로 형의 분노를 풀어보려고 많은 가족으로 뇌물작전을 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II)

기도는 문제해결의 열쇠요, 지름길이다



윤병이 목사
(부산반역제일교회 담임)

교회들이 철야기도, 특별기도회라고 이름만 붙이고 커피 마시고 잠담하고 시간 다 보내고 기도했다고 한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야곱은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 형 에서를 만나니 에서는 숙곳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세일로 돌아갔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가? 기도하라. 기도가 문제해결의 열쇠요 지름길이다. 땅을 파는 굴삭기가 하루에 사람 3천 명분의 일을 한다고 한다. 하나님께선 굴삭기 3천만 대 분

지내고 나니 스님이 말씀이 “차를 집어 넣을 회사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 분은 그냥 돌아오는 길로 형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나는 마귀의 종인 중보자는 주의 종인 목사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기도했다. 마침 여름이라 주위 여러 교회에 연락하여 수련회에 가는 학생들 수송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후에는 확원과 중소기업에 출퇴근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그런데 좋아질 만 하자 시험꺼리가 생겼다. 당시 관광 붐이 불면서

데 돈에 여유가 있는 분을 만나 “내가 보증을 설 테니까 김수겸 씨에게 700만원만 빌려주라”고 했다. 그렇게 자금을 마련해 그에게 주면서 “돈 벌어서 이 빚 먼저 갚고, 그 후에 주님이 돈 주시면 교회 스텐 버스를 사라”고 했다. 그때 처음 스텐 버스가 생산되었는데 가격은 2천만원 정도 되었다. 사실 당시 우리 교회에 버스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분은 “예”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1년 만에 빚을 다 갚고 권리금 2천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기도보다 더 좋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없다. “말씀 한 마디로 천지를 조성하셨다”는 이 황당무계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별 볼일 없는 작은 일은 못 믿는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말고 살아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12:1-10에 보면 헤롯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두었다. 베

사·모·칼·럼



장사라 사도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덕택의 삶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 위한 차분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있지 않고 의와 영광과 희락에 있다는 그 거룩한 삶을 맞이 위한 단장을 해본다.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씻고 얼굴과 몸을 씻듯이, 마음에도 그렇게 쌓인 먼지들을 털고 덕지덕지 붙은 때들을 닦아내어 마음과 삶에 진정한 빛이 임하는 광복을 맞이한다.

늘 몇 살까지인지, 돈은 얼마 남았는지, 언제까지 마감인지, 그 어느 것도 여유가 없이 조여 오는 삶 속에서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 사이에 엑셀레터와 브레이크를 밟으며, 내가 나 되는데 기여하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매일 바라보는 익숙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들과 함께 놓고 일어나고 전화하고 밥 먹고 하는 길들여진 일상들조차 사랑할 수 있으리라.

사랑은 그 사람에게 대한 애매미 이라는데, 때로는 그 애매미 때문에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해석하느라 맘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켜보면 무시하듯 그들 모두가 집으로 돌아와 주었다는 안도감 때문에, 주일이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소속감과 애매미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다시 살아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의 존재 자체의 고마움을 알고 산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믿음이라.

스펠전 목사님의 예화이다. “만일 당신이 기차를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새로운 엔진을 장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엔진에 불을 붙여 뜨겁게 달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 현재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첨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활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훌쩍 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아 너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찾음에 ‘저 여자 때문에...’란 원망과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의 역사가 그리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삶은 그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으면 잘 살아가는 쉽고 간단한 것인데 어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공감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음악이 나와도 춤을 추지 못하고, 슬퍼도 울지조차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대는 오늘도 계속되는가 보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모든 불행이 찾아왔고, 건강 때문에 고통과 한숨의 세월을 보냈다는 그놈의 ~때문에 때문에 여천히 가슴이 답답한 우리네들...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난 ‘덕택’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 아니라 그 ‘덕택’에 가족 전문가가 되었고,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 병 ‘덕택’에 책을 많이 읽고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덕택의 삶’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덕택의 삶’을 살다보면 ‘웃음’이 그야말로 ‘우숨’, ‘우주의 숨’이 되어 삶이 뭘 별것이겠는가... 그렇게 문제들이 아주 작고 쉽고 간단해져서 웬만한 인간사보다 그냥 ‘우숨’ 안에서 웃을 일들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발휘해서 함께 뭉쳐야 할 때이다. 은사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격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리라.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의 아름다운 퍼즐로 조화롭게 맞춰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부모가 어린 예수를 찾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듯 오늘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그것이 나의 대답이면 좋겠다. 그렇게 하루 중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성전이고 제일 자주 드나드는 곳이 교회 문턱이어서 언제 어느 때고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었으면... 바램해본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 모든 일에 확신, 주님의 돕는 손길 보여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는 약속 성경에

환도 뼈가 부러지도록 밤새 기도했다. 그 기도가 야곱에게 약속과 함께 담대함을 얻게 했다.

오래전 ‘중국선교협의회’ 구성을 위해 조찬기도회가 있다고 초청장이 왔다. 장소가 부산 코모드 호텔이다. 나는 바보라 ‘왜 기도회를 호텔에 모이느냐’ 생각하며 그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앉으니 조그마한 그릇에 죽이 나왔다. 그것을 위해 감사기도를 드리고 죽을 마셨다. 그러자 이제에는 회의를 한다고 회장을 비롯해 누구누구 부르더니 임명장을 주고 나서 다 끝났으니 일어나서 가자고 했다. 그래서 나는 옆에 있는 분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아까 죽 먹을 때 한 것이 기도입니다”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조찬기도’란 말을 이해했었다. 그리고 난 후에도 다시 ‘조찬기도회’라는 장소에는 가지 않는다. 왜 주의 종들이 교회도 기도원도 있는데 하필 그 많은 돈을 들여 호텔에서 기도회를 하는가? 나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주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실 지 의문이다.

야곱은 씨름했다고 한다. 기도는 한가하게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씨름하듯이 급박하고도 절실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야곱은 환도 뼈가 위골이 났다고 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다. 실제적인 중노동이다. 눈만 감았다고 기도는 아니다. 요즘

량보다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음을 믿으라.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굴삭기나 덤프트럭을 동원하셨다면 몇천 만대나 동원되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조성하셨다. 기도하자. 내가 앉아 기도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우리교회 김수겸 집사는 나를 만나기 전에 시내버스를 운전했었다. 그런데 술은 ‘지고는 못가도 마시고는 간다’고 할 만큼 술고래였다. 또 당시 청자 담배를 하루 세 갑씩 피웠었다. 1985년의 일이다. 그 당시 김수겸씨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버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단골로 다니던 사찰에 고사를 지내러 갔다. 그의 형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 형이 나에게 동생이 절에 고사를 지내러 가는데 같이 갔다와도 괜찮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나는 “미쳤나, 고사지내러 가게 두지 말고 동생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라”고 했다. 그리고 “부산에도 유명한 사찰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경상남도 밀양까지 가느냐?”고 했더니 “단골로 고사 지내러 다니는 절의 스님이 버스를 사면 좋은 회사에 집어넣어서 사람들 출퇴근 시키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35인승 중형버스를 사서 고사를 지내러 간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가서 담뭍을 비틀어 차 밑에 넣고 바퀴로 담을 깔아 문개 고사를 다

토요일에 출발하여 월요일에 돌아오는 코스가 많아진 것이다. 그때 한번 번 갔다 오면 40만원을 받고, 4주면 160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하겠다고 했고, 나는 “주일을 범하는 일은 안된다”고 했더니 이제에는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가는 사람 붙잡지 않을테니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네가 그 교회 기도 돈은 못 벌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가서 두 달 만에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사연인즉 차를 길에다 정차 시켰는데 이 차가 술술 굴러 내려가서 전주를 들어 받아 전주를 넘어뜨리는 사고가 난 것이다. 마침 변압기를 설치해 놓은 전주에서 그 배상금이 700만원이나 되었다. 1985년 당시 35인승 중고버스는 350만원인데 배상해야 될 금액이 700만원이나 되었으니 버스를 팔아도 갚기 어려운 큰 돈이었다. 그분은 완전히 망해서 두 달 만에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왔다. 나는 참 쾌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망한 것이 속상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잘 왔다고 하고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그 후 그분은 할일이 없으니 날마다 교회에 와 청소도 하고 기도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족한 종이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장사를 시켜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

드로는 감방에 갇혀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철문 밖에는 간수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기습 공격을 의논하거나 뇌물 공세를 퍼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베드로 사도의 문제를 놓고 살아 계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주께서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하여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옥에서 내보내 주셨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다.

사람의 쥐꼬리만도 못한 상식이나 지식의 한계 속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놓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내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하실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창18:14), 주님의 모든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다(눅1:37).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인척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라(민13:19).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격정하셨다(눅18:8).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신다. 아멘.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 자격 Qualification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일인당 \$1,000 per person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2015년 11월 30일 / November 30, 2015

● 신청 서류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 서류 보내실곳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oad, Kalamazoo, Michigan 49008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T/ 773-206-3809(Hyomyeong Rhiew) / hmrhiew@sbcglobal.net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명/ 장학위원장: 이상진/운영목: 회계: 홍순백/ 서기:김정준/ 홍보담당:이상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소속, 주 사랑 장로 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 | |
|-----|---|
| 자 격 | 1. 이민 목회에 소명이 있고, 2세 교육에 사명고 비전이 있는, 만45세~55세에 해당하시는분
2. 4년제 대학을 졸업후에, 정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또는 신학 석사 이상의 과정을 졸업하신분
3. 인정된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K.A.P.C)에 가입 가능한분
4. 미국거주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
|-----|---|

- | | |
|------|--|
| 제출서류 | 1. 한글 및 영문 이력서
2. 본인 소개 및 목회 소신서
3. 신학교 졸업 및 목사 안수 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전의 설교 CD 혹은 동영상(DVD, 웹사이트 주소) 2편
5. 가족 사진 첨부된 가족 소개서
6. 추천서 (2인) 반드시 추천인 자필 서명
7. 현 시무 교회 후보(4주치 후보) |
|------|--|

제 출 처 주사랑 장로 교회 목회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209-08 48th Ave Bayside, NY 11364

서류마감 2015년 10월 30일 까지

문 의 김종태 장로 (johnck.kim@gmail.com) 516-523-4959

-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 장로 교회

www.joosarangny.org Tel. 718-229-8855



목회서신

살아야 산다: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아야 세상 변화시킨다

요즈음 '죽어야 산다'는 종류의 책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책 가운데 '교회도 죽어야 예수가 산다'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기자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진 한용상이란 사람이 쓴 이 책은 현대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온데 간데없고, 목사의 위상화와 신도들의 우민화, 신비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 그리고 불광주의, 성장주의, 배금주의에 빠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익산 갈릴리교회 이동준 목사가 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2000년 1월 기독교 신문에 게재된 칼럼에서 동료 목회자들을 사정없이 원색적으로 성토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혁대상인 목사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들리고, 뇌성처럼 들어야 할 예수님의 소리는 간 곳이 없다"고 비판했으며, "교회 안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것

을 교회 밖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종류의 책으로, '대형교회가 망해야 한국교회가 산다'가 있습니다. 감리교 단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나사렛성결교단 소속의 이계선 목사가 쓴 이 책은, 교회에 대해 기록신앙 푸닥거리, 사기꾼, 무당종교, 위기로 몰아가는 주법, 세속화의 극치 등 극단적인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하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여 한국 대형교회의 처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한용상씨, 이동준 목사 그리고 이계선 목사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공감 가는 대목도 많습니다. 그들이 지적한 그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절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죽어야 할 목사보다 죽어서는 안 될 목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가지지 않겠다며 무소유의 철학을 몸소 실천했고, 한창 성장 중에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임을 만류했지만, 자신의 뒤에 오는 새 담임목사에 게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이임예배를 드리자마자 미련 없이 새 선교지로 떠났던 주님의교회 옛 담임, 이재철 목사는 보통 목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죽어서는 안 될 목사입니다. 또, "교회는 목회자의 개인소유가 아니며, 교회가 젊어지고 새로워지는데, 내가 부당이나 결립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4년간 시무해 온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난 광주혜성교회 장길준 목사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교회건축이 곧 부흥"이라는 신화를 깨뜨린 전주 안디옥

교회, 일명 '강동교회'의 이동휘 목사의 경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회철학은 개혁적이고 특별했습니다. 교회제정의 60%는 선교비로 책정했고, 모든 봉사자는 무보수며, 상장, 선물제도를 폐지했고, 교회의 모든 기관을 사역별 선교체제로 조직, 운영했으며, 교회문을 24시간 개방했고, 구제와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 동참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몸은 그리스도입니다(엡1:22, 골1:18).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위임자입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도 죽고, 교회가 죽으면 목사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교회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도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 한 목소리...분단70년 LA통곡기도대회

"주여, 분단70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그날까지선교연합(UTD/대표 손인식 목사)과 해외3천인목사단이 주관하고 남가주 모든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최한 '분단 70주년 통곡기도대회'가 4일 오후 4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LA 통곡기도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박희민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찬양팀의 찬양과 환영영상으로 시작된 통곡기도대회는 손인식 목사의 환영사와 송정명 목사(월드미션신대원 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뜨겁게 시작됐다.

이날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김성민 목사(남가주세소망교회),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는 교회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을 향해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단애 오른 탈북여성 이소연(전 북한 여군상사) 씨는 "죽고 싶은 때가 3번 있었다"고 입을 열며 "베고픔을 견디다 못해 죽고 싶었고 그 베고픔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시도했지만 첫 번째 탈북에서 실패해 모진 고문을 당했고 다시 두 번째 탈북을 시도한 끝에 한국에 가게 됐다"고 탈북과정을 들려주며 "내가 겪은 고통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북한 가정과 내 동포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북한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이어 '이 민족과, 강제 수용소에 갇힌 동족, 중국 땅에 숨어있는 동

족, 지하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목소리로 간구한 후 원영호 목사(새장로교회)의 기도가 있었다.

또한 김한오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는 "70년 동안 분단된 조국을 보고 통곡하며 절규가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영적 태만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는 "지난 70년 동안 도둑질 당한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큰 간절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통일을 염원했다.

한편, 이날 설교한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는 "기도 없는

통일은 재앙입니다(예레미야 33장 3절)"라는 제목으로 "기도 없는 삶은 능력도 없는 삶이다. 분단을 끊고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기도할 때 에베에셀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다. 북한에 경제가 무너지고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가며 하나 되는 운동을 이뤄야 한다. 통일한국을 통해, 인류역사를 이뤄가기 위해 한국을 들어 쓰실 것이다"라고 설교했다.

이어 아코디언을 들고 단애 선 최수향(전 평양예술단 연주자) 씨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담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른 뒤 "통일이 되면 다 함께 금강산을 가자"며 '그



2015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목회자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목회 리더십!"

2015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목회자리더십 컨퍼런스 성료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가 주최한 2015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9월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최됐다.

담임 정인수 목사와 수년간 리더십 컨퍼런스를 이끌어온 교회 목회팀 목회자들이 총 출동한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목회자와 리더십', '교회사역구조 혁신', '선교적인 교회로 혁신', '목회자와 성령 목회'라는 소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캐나다와 미국 각지에서 목회자 43명이 등극한 이번 컨퍼런스는 참석자들의 리더십을 진단하고 평가해 조언할 뿐 아니라 위기를 헤쳐 나가는 강력한 목회 리더십의 훈련, 새 시대 목회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목회론, 성령과 말씀 목회가 병존하는 부흥의 교회, 강력한 선교적 교회로 체질 개선하는 살아 리더십,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임상사례 공개,

145개 평신도 사역팀 및 가정공동체의 역동성 및 리더십 훈련, 광범한 어머니들을 강력히 기도의 영성 공동체로 바꿔 나가는 사역, 인생 100세를 열어가는 실버 사역의 창조적인 목회 기획, 다니엘 플랜을 통한 전인적인 건강목회, '생수의 강'이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사역 노하우 등을 다뤄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주제 강연을 진행한 정인수 목사는 "결국 사역의 성공은 큰 교회를 만든다는 외형적인 성공에 있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외형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며 목회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드린 기도 내용을 나누며 강조했다. 정 목사는 "영적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라 주님의 연단의 손길이 없으면 좋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그런 체험들이 있다. 처음부터 목회가 잘된 것이 아니다"라고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정 목사는 또 "리더십은 예술적인 면이 있는데, 직관적인 것이 있다. 목회의 경륜이 쌓이면 직관적 능력이 생긴다. 훈련과 임상과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직관이 발달되는 것이다. 또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리더십은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므로 정형화 할 수 없다"며 사역구조와 연결해 "교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한때 한국과 한인교회에 유행하던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고 교회에 도입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그 교회에 안 맞는 것이다. 목회적인 상황과 도양에 따라 자기 몸에 맞는 목회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수 목사는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주되시는 진정한 신앙고백이 확고한 교회, 성령님의 역동성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나갈 때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리더십 컨퍼런스는 지난 수년간 아틀란타 지역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다양한 목회자들이 참석해왔으며, 수료 이후에도 목회자들 간 네트워크가 구성돼 활발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다. (기사제공: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리운 금강산'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이민복 선교사(현 대북풍선 단장)와 지성호씨 (나우대표)의 탈북간증을 들은 뒤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 피 흘림과 보복이 없는 통일, 한민족이 위대한 나라 되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통일 주역이 되게, 한국교회가 교만과 허영에서 돌아서게, 통곡기도의 불길이 휴전선을 태우게, 한국교회가 통일의 주역을 담당하게 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한 후 남성수 목사(OC한인교회), 백정우 목사(동신교회)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김경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드러진 헌금은 탈북자구출과 탈북민 치유사역을 위해 사용되며 광복군 목사가 헌금을 위해 기도했다.

분단 70주년 미주지역 통곡기도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되어 달라스, 디트로이트, 아틀란타, 워싱턴, 덴버에서 개최됐다.

마지막으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LA 지역 통곡기도회는 손에 태극기를 들고 교회당을 메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열기로 가득 채워졌으며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기립 박수로 환호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성자 기자)



KWMC 28차 년차총회 26-28일 은혜한인교회

2016년 6월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준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제 28차 년차 총회가 10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제 28차 년차 총회에서는 2016년 6월에 개최될 제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2016)를 위한 중요 안건들을 논의하게 된다.

제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며 대회 장소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으로 확정됐다. 본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한인세계선교사대회(KWMC2016), 세계청년

선교축제(GKYM2016), 한인세계선교대차녀(MK)대회, 청소년선교대회(GKYMYouth), 어린이선교대회(GKYMKids) 등과 함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이 될 것"이라며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이 참석할 수 있으며 꼭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845)267-4159나 kwmc@kwmc.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열정적 신앙생활로 하나님 뜻에서 도피 말아야

(1면에서 계속)

6.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하나님과 깊은 내적 교제는 걸여된 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만 매달리던 중국에는 이기주의나 권력, 인정받으려는 마음,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개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 등에 의해 오염되고 말 것이다.

7. 갈등을 회피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분의 삶은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평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거짓

평화를 만들지 않으셨다. 주님은 갈등을 적절히 무마하거나 은폐하지 않으셨다.

8.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성경은 위인들의 약점이나 결함을 예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은사나 능력을 가졌다 해도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하나님과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9.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 우리는

한 인간일 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란 환경을 바꾸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그 힘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만족하는 힘이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였다.

10.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다름과 차이를 도덕적 우월함이나 미덕으로 바꾼다. 다른 사람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보폭에 맞춰 움직이기보다 우리의 다르게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불편함으로 투영시킨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5면에서 계속)

수많은 언론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이전에 일어난 총기 살해사건을 모방한 'copy cat' 사건이라고는 보도하면서도 사실상 죽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며 "죽음의 유행병"과 같이 퍼지고 있는 "미국의 크리스천과 성경적 가치관을 미워하고 있는 미국의 현 사회 문화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었다면?

만일 죽은 학생/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무슬림들이었다고 해도 지금같이 그냥 '에도'와 'Gun Control'의 문제로만 보도할까요? 죽은 학생들/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총을 맞아어만 했던 이유, 크리스천들을 죽여야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이유들은 왜 아

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며, 미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도 언급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만일 이런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수업실의 무슬림들 머리에도 총을 맞고, 다른 학생들은 다리에도 부상을 당했다면..... 지금 이슬람쪽 국가들과 미국인의 무슬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연설로 끝낼까요?

총기사건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총기규제의 이슈가 아니라 "가치관"의 이슈이며,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릇되고 편협적인 교육"이 오바마 정부가 들어온 후 더 심각해진 공립학교의 교육을 통해 맺혀진 사악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와 가정에서 진짜 가르쳐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 '진정한 사랑', 더 나아가 '성경적 가치관'들입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을 세운 것처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다시 이 땅의 주인으로 모

시고 섬기며, 이 땅에 지금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들을 무너뜨려야만 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간단히 지금 미국인의 총기사건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성경말씀만이 미국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향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태도가 미국 내에서 절대로 위협을 당해야 하는 조건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자유와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사상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국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 전문적 활동 전개” 미기총 동부지역 2차 뉴욕교협 간담회



퀸즈장로교회 건축 바자회 성황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가을 건축 바자회가 지난 3일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 까지 열렸다. 매년 선교 후원으로 열렸던 바자회가 이번에는 다민족 선교관 건축을 위해 온 교우들이 정성을 모아 총 7만1천여 달러의 수익금을 올렸다. 각종 음식과 생활용품, 의류, 건강산발, 잡화류, 주얼리 등 예년과 동일한 메뉴를 선보였으며, 태풍으로 인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인지 음식주문 배달이 한몫 했다. 특히 청년부들의 헌신이 돋보였으며 직접 제작한 티셔츠도 인기를 끌었다. 바자회에는 장영춘 원로목사와 김성국 목사가 함께 참여해 교인들을 격려했다. (유원정 기자)

16일 뉴욕교협 제 5차 임실행위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 제 5차 임실행위위원회가 10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교협 건물에서 열린다. 지난 4차 임실행위에서 회계 감사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총회 전 마지막 실행위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돼 다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실행위에서 모든 업무가 완료돼 총회를 치를 수 있다.

5차 실행위가 마무리 되면 제42회 총회는 10월 26일(월)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개최된다. 선거사전등록은 10월 5일(월)부터 21일(수)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26일 총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전년도 회비와 42회기 연회비(120달러)를 납부하고 선거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제14회 정기연주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테마 있는 찬양 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 14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지휘 양재원) 제 14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4일 저녁 6시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방직목사가 기도한 후 10년 근속 김영애 전도사에게 근속표창이 있는 후 시작된 연주회는 엘토코치 박영경의 독창이 있는 후 1부 합창 “나의 주님”이 진행됐다. “주님의 사랑”, “주님”, “주님의 숨겨”, “주님 지으신 숨겨” 등을 불렀으며 특별연주로 베델제임버양 상블이 클라리넷 콰텟트가 연주했다. 2부 합창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은혜”, “주의 증인되리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선지자 엘리야” 등을 불렀다. 김은희, 백성화, 박영경 등 파트코치들이 여성중창을 불렀으며 3부 합창 “찬양의 축제”는 “축제의 알렐루야”, “복을 치며 찬양”, “기뻐 노래하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주” 등을 부르고 우수한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2001년 월드트레이드센터 테러 후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자 다짐하며 창단된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갖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세계를 다니며 찬양으로 선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미주기독교한인총연합회(KCCA, 이하 미기총) 회장단이 지난 6일 오전 11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동부지역 2차 뉴욕교협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월 17회기 회장으로 선임된 최낙신 목사는 “미기총의 목적을 추진하면서 전 지역 협의회 회장 및 회원들과 원활한 교제를 갖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며 “미주 내 125개 교협이 있는데 우선 각



미기총 동부지역 뉴욕교협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아펜젤러 선교130주년 기념대회 축하예배에서 김홍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성화의 빛을 발하자” 뉴욕뉴저지 KUMC, 아펜젤러선교130주년 기념대회

뉴욕,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연합회가 주관한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가 10월 4일 축하 예배와 5일 목회자 신학생 포럼으로 개최됐다. 지난 4일 오후 5시 후러시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 축하예배는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김홍기 목사가 감리교의 효시인 존 웨슬리와 130년 전 한국에 온 선교사 아펜젤러의 업적과 의미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2부에서는 KUMC 회원교인들이 모은 장학금을 대표 이재덕 목사가 아펜젤러의 묘기에 드류신학대학원 학장 하비에르 비에라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홍기 목사는 “성화의 빛을 발하자”(마5:1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웨슬리가 강조하고 아펜젤러가 조선에서 불붙인 사회적 성화는 기도와 말씀으로 내면을 가꾸고,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과 행함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며 “130년 전 아펜젤러가 한국에 뿌린 씨앗이 현재 한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다. 그동안 기독교인으로 서 사회적 성화에 소홀했다면 반성하고, 다시금 세상에 사랑을 실천해 부흥을 일으키는 진정한 아펜젤러의 후예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헨리 아펜젤러(1858-1902)는 1885년 조선에 입국해 활동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며, 최초의 근대사학인 배재학당, 정동제일교회 설립자이자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 44세에 서해 어청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침몰로 생을 마감했다. 특히 2부 순서에서는 존 가우처 박사의 흥상을 기증한 방은호 장로가 인사를 했다. 가우처 박사(1845-1922)는 아펜젤러를 후원해 한국 감리교회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1부 예배는 이재덕 목사(NJ 티넷 한인연합감리교회) 사회로 KMC 교리적 선언 낭독 이용보 목사, 기도 도상원 목사, 성경봉독 임민숙 권사, 연합성가대 찬양, 말씀 김홍기 목사, 합심기도 양민석 목사, 뉴저지 사모전양단 봉헌송, 조건삼 목사 봉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장재용 목사 사회로 트럼펫 연주 유요선 집사, 대회장의 장학금 전달, 드류신학대학원 한인중창단의 특송, 미들튼 감독의 서신 축사, 뉴욕장로성기단의 축복송, 광고, 나경용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지역 회장단을 방문하고 대의원 대회를 통해 지역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전문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낙신 목사는 “미기총 회원교단마다 신학이 달라 혼란이 있거나 성경적 신학과 목회관을 갖고 미기총을 이끌겠다”며 동성에 문제를 예로 들어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예배는 이재덕 뉴욕교협회장, 성경봉독 이종명 뉴욕교협부회장, 특송 안주련 집사, 설교 최낙신 회장(“충성된 엘리에셀의 삶”, 창24:1-9), 환영사 박희소 초대회장, 축사 허길 뉴욕교협총회장단

회장, 이병홍 뉴욕교협총회장, 전영현 수석공동회장, 인사 황경일 상임회장, 광고 김희복 뉴욕교협총무, 축도 방지자 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김영환 네너 안주련 소프라노의 특송이 있었으며, 김영환 뉴욕목사회 부회장의 식사기도 후 오찬을 나누며 친교를 나눴다. 미기총은 1998년 시카고에서 1차 총회를 갖고 시작했으며 △미주 지역 교계의 일치, 협력, 화합, 선교, 봉사, 연합사업 추진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 확립 △한인 이민목회의 미래를 향한 방향설정 △2세 교계 지도자 양성을 연구하고 추진 △세계선교정책과 지역사회 방향을 제시 △회원 상호간 친목과 원로목회자의 노후대책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강사 김종석 목사가 새가족 정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 뉴욕전도협 주최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

뉴욕전도협의회(회장 오대환 목사)가 주최한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가 5일부터 사흘간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교회돌봄연구소 대표 소장 김종석 목사, 대구목자교회 담임 박기준 목사, 대구목자교회 이해란 사모, 서울 성수감리교회 담임 강유형 목사 등 4명. 첫날은 “새가족 정착 코칭&컨설팅”(김종석 목사), 둘째 날은 “시스템 양육을 통한 새가족 정착”(이해란 사모), “새 가족 사역의 위한 전도”(박기준 목사), 셋째 날은 “One Pass 전도와 새가족 정착 방안”(강유형 목사)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첫날 뉴욕사모합창단의 찬양 후 오대환 목사가 강사를 소개하며 인사말을 한 후 김종석 목사의 강의로 들어갔다. 오대환 목사는 “새가족 정착은 교회부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로 인해 뉴욕 목회 현장에 큰 활력을 일으키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1)우리 교회의 새 가족 모집의 운영형태는 어떠한가(6하 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Tel: (917)733-7387 45-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718)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6:00 Tel: (347)753-4551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www.nyangiro.com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8)886-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kapoc.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WM예배: 오후 1:30 화요일찬양: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5:4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edchur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포트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회: 오후 12:30 주요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277-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j.us/	에사랴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은사)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o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k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주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뱅크빌빌라델비아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금요찬양: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8: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n Rizer,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1A0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Ó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일,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2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imkr@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OC교협, 차세대리더 장학금 및 리더십상 수여식 15개 교회 등 참여 총 62명에 3만1천불 수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는 지난 10월 3일 오후2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제 4회 차세대 리더 장학금 및 차세대 리더십 상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 앞서 드린 감사예배는 김기동 목사(OC교협 회장) 사회로 수석부회장 민승기 목사 기도, 본 협의회 증경회장 한기홍 목사 설교(“꿈을 꾸고 이루어라, 창37:6-9), 영 김(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 의원과 ABC교육구 우수연 교육위원의 축사, 본 협의회 이사장 엄영민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서 2부 수여식은 송규식 목사(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대학생 Jane Yi 의 29명과 고등학생 Jihye Hwang 의 31명으로 모두 62명의 학생에게 각각 50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하고 장학생 전원에게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영김 의원이 주는 차세대 리더십 상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를 위해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중남교회(김기동 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민승기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엄영민 목사),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 엘바인연합선교교회(신현철 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박재만 목사), 조이피플교회(김성지, 이태종 목사), 남가주제자교회(이선자 목사), UBM교회(안드류김 목사), 남가주지구총교회(곽재필 목사), 임마누엘헬로침교회(안중기 목사), 로고스교회(박경일 목사), OC원로목사회(회장: 최승구 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중대 장로), PNS한인목(윤우경 사장), Gateway Academy(유수연 교육위원), OC한미시민권자협회(김도영 장로), 이범식 장로(OC교회 후원회회장), 이종열 장로(OC교협후원회 이사), 김영수 장로(OC교협후원회 이사)가 후원해 총 31,000달러의 장학 기금을 마련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OC 교협 2015년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



제 9회 웨슬리언 찬양제에 참석한 로스펠리교회 찬양팀

찬양으로 하나 된 감동과 은혜의 밤 웨슬리언연합찬양제, 구세군 등 10개 교회찬양대 참가

남가주 지역 웨슬리언들이 한마음으로 울려드린 꿈과 아름다운 연합찬양의 화음이 2015년 추석 저녁을 곱게 수놓았다. 제9회 웨슬리언연합찬양제가 원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주철 사관, 한빛성결교회(차광일 목사), 찬양-은총교회 연합찬양대(김성대, 채인석 목사), LA연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 나성 동산교회 EM 찬양팀(한기형 목사), 로스펠리교회(신병욱 목사), 셋별선교합창단(이흥기, 이봉조 선교사), 원서연합감리교회(황기호 목사), 남가주 벨엘교회(오병익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웨슬리언교회 목사 부부, 전도사 부부 등이 등단에 김원재 집사(코리언의 노래 보급협회 사무국장)의 지휘로 '코리언의 노래'(이정근 목사 작사, 백경환 목사 작곡)를 회중들과 함께 합창한 후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조명환 목사는 광고시간을 통해 "처음 참가한 남가주벨엘교회에 감사한다"며, "찬양제가 처음 열린 유니온교회서 내년 제10회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찬양제는 구세군나성교회(담임 이주철 목사), 한빛성결교회(차광일 목사), 찬양-은총교회 연합찬양대(김성대, 채인석 목사), LA연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 나성 동산교회 EM 찬양팀(한기형 목사), 로스펠리교회(신병욱 목사), 셋별선교합창단(이흥기, 이봉조 선교사), 원서연합감리교회(황기호 목사), 남가주 벨엘교회(오병익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웨슬리언교회 목사 부부, 전도사 부부 등이 등단에 김원재 집사(코리언의 노래 보급협회 사무국장)의 지휘로 '코리언의 노래'(이정근 목사 작사, 백경환 목사 작곡)를 회중들과 함께 합창한 후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조명환 목사는 광고시간을 통해 "처음 참가한 남가주벨엘교회에 감사한다"며, "찬양제가 처음 열린 유니온교회서 내년 제10회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한인가정 상담소가 주최한 제 32회 기금모금 후원의 밤이 LA 다운타운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인위탁가정 21곳 생겨...입양도 6명 한인가정상담소 제32회 기금모금 후원의 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주최한 제 32회 기금모금 후원의 밤이 9월 30일 오후 6시 30분 LA 다운타운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국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에게 9차례 한인가정에 위탁이 이루어졌으며 6명의 아이들이 한인가정으로 입양됐다"고 밝혔다.

카니정 소장은 환영사에서 "32번째 맞이하는 기금모금 후원의 밤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2014년 '동지 찾기'를 시작할 때 라이선스를 가진 한인 위탁가정이 한곳도 없었다. 하지만 가정상담소가 '동지 찾기' 시작을 알렸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전화를 9일 만에 110통이나 받았다. 현재 21개의 한인가정이 LA지역에 생겼으며 아동보호

조 소장은 "이런 일들은 한인들의 특유의 '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많은 가정들이 이 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탤런트 신애라 집사가 연사로 참석해 입양과 위탁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기금모금 후원의 밤은 영김 거주하원의원과 데이비류 L.A시의원 등이 참석해 이날 행사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 가곡의 밤 작곡가 임공수 초청, '강 건너 봄이 오듯'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가곡의 밤이 지난 4일 오후 7시 원서감리교회(담임)에서 개최됐다.

민지가 특별 초청됐으며 L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오우영, 바리톤 정재혁, 김철이 씨가 무대를 장식했다.

코헝가 초등학교 합창단 어린이들의 '우주자전거', '우리 엄마는 사랑을 만드는 요술쟁이'의 오프닝 송으로 막을 올린 가곡의 밤은 명성 있는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을밤을 수놓았다.

한편 코헝가 초등학교 합창단, 영앤셀스 합창단, 남가주한인합창단이 특별 찬조 출연했다. 본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중국 장가계 창조과학 탐사여행

세계창조선교회(박창성 목사)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3박5일간 중국 장가계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준비하고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집결지는 20일 인천공항이며 당일 중국 장가계에 도착, 천문사, 천문동, 원가계, 양가계, 황룡동굴,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등을 돌아보게 된다. 탐사여행 인도는 박창성 목사가 직접 맡는다.

▲문의: info@wcmweb.org

기독교평신도연합회 광복70주년 교회연합음악회 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가 11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광복 70주년 남북평화통일 기원교회연합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 34년간 교회연합성가제를 개최해오던 연합회는 올 행사를 음악회 형식으로 변경했다. 행사 중 드러진 헌금은 남북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그날까지(Until the Day 대표 손인식 목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714)417-1528

선한목자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행사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가 치노힐 지역으로 새롭게 이전하고 설립 4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10월 9일부터 11일(주)까지 기념부흥회, 강사는 림형천 목사. 음악회는 10월 18일(주) 오후 6시30분. 교회 새주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문의: (626)965-3443



미주총신대 음악과 주최 랜디김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회가 카페 지베르니에서 열렸다.

랜디김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회 미주총신대 음악과, 신예슬 바이올리니스트 찬조출연

미주총신대학교(총장 김근수 박사) 음악과가 주최한 랜디김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회가 한인타운에 위치한 카페 지베르니(252 S. Oxford Ave)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다. 앞으로 이곳에서 자주 공연을 가졌으면 한다"고 공연소감을 밝혔다.

랜디김 교수는 "공연장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었다. 관객들 호응이 높아서 좋은 공연 할 수 있었

공연을 미주총신대 교수로 재직 중인 랜디김 교수가 그의 제자들과 밴드를 구성해 나섰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신예슬 자매가 찬조 출연해 밴드와 협연을 했다.

(박준호 기자)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 가곡의 밤에서 오프닝송을 선사한 코헝가초등학교 합창단과 '안개꽃 당신'을 열창하고 있는 소프라노 임청하씨.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인대학원: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오후 8: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인대학원: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오후 8: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오후 6:00(토) Tel: (626)691-0691, (F) (626)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회(월-금): 오전 5:30 수-금요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원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li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단독주일) 평일예배: 오후 7:30 영아원(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t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오후 8:0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gpcr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아서 있는 우리의 중추를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 주일학교: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환: 팜스 광장),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3:00(월-토), 6:00(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영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 2부: 오전 9:45 / 3부: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평일예배: 오후 7:00(월-토) / 오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전 2:00(천년) 상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인양예배: 오후 1:00(수요일)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수-금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www.gpcrc.org	세계성당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8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6:00(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오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inut Ave., Irvine, CA 92604	원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천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단독주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요절기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단독주일)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은혜제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j.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단독주일)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오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9-9259 Fax: (714)649-9264 16800 Immanue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c.com / e-mail: pastor@cornestonetc.org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천년, 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단독주일)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천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2015 한국 교단 총회 결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선이 지난 24일 제100회 총회 폐회예배를 드린 것을 끝으로 주요 교단 총회가 마무리됐다. 각 교단 총회 결의사항은 곧바로 교회 현장과 총회본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9월 총회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의미를 살펴본다.

교단통합 잇단 성공

기득권 대신 대화·협력·배려의 통합 모델
...현장교회 전도·교육 '시너지'

올 9월 총회에선 대형 1개, 중대형 1개, 소형 1개 교단이 새롭게 탄생했다.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과 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이 통합해 예장대신이 됐으며, 예장고신(총회장 신상현 목사)과 고려(총회장 원현호 목사)가 합쳐져 예장고신이 됐다. 분열을 거듭하던 개혁측 일부도 예장개혁(총회장 박영길 목사)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다.

통합된 예장대신의 교회 수는 최소 6000여개로 예장합동(1만1593개), 통합(8731개)에 이어 국내 3대 장로교단 자리를 확고히 했다. 전체 교단 중에서는 예장합동,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6518개)에 이어 네 번째다. 구 대신측 교회들이 대부분 합류한다면 7000개가 넘을 수도 있다. 통합 총회장에 추대된 장종현牧사는 "훗날 역사는 분열로 얼룩진 장로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단통합을 결정한 대신과 백석 교단에 바른 평가를 내릴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예장대신의 통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구 대신측 교회 중 3분의 1은 교단통합에 찬성, 3분의 1은 반대, 3분의 1은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새중앙교회 등 구 대신측 대형교회와 홍호수 총무, 총회본부 직원들은 통합교단에 합류했다. 하지만 교단지였던 '한국교회신보'와 일부 중형교회 등 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은 별도 총회를 갖고 박종근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다. 관망세를 보이는 총회유지재단과 3분의 1가량의 교회가 남은 변수인데, 이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이번 가을노회 때 드러날 전망이다.

예장고신은 고려와의 통합으로 교회 수 2113개, 성도 수 55만명 규모가 됐다. 고신은 고려와 통합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려 총회 현장에 환영사절단을 보내고 고려 총대들에게 상석(上席)을 배려하는 등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 고신은 고려 노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목회자 학적관리, 고려 신학생의 고려신학대학원 특례입학 등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 덕분에 별다른 진통 없이 통합을 마무리해 교단통합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했다.

예장개신(총회장 박용 목사)은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영입했던 예장개혁(총회장 김윤복 목사)과 결별하고 송천동측 일부와 통합했으며, 교단 명을 예장개혁으로 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신학과 전통이 같은 교단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전도와 교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교회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하기관 장악 나선 교단들

총회 위상 제고·문제 기관 고삐 죄기

주요 교단은 9월 총회를 통해 산하 기관에 대한 장악력 강화에 나섰다. 총회의 심부름꾼으로 파송한 각 기관의 이사과 이사장 등이 총회의 뜻을 거슬러 기관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일부 인사들은 산하기관에 파송된 뒤 이사회를 장악해 이익집단처럼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도덕적 해이를 일삼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9월 총회에서 연금재단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총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불법 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총회 파송 이사 전원을 해임했으며, 재단 이사회가 기금을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기금운용분부를 해체하고, 전문 금융기관에 기금 운용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2년마다 연금재단에 대한 외부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연금재단 정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예장통합은 아예 '총회 산하 기관·단체의 이사 및 감사를 총회가 임명(任免)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일단 산하기관에 이사회 감사로 파송되고 나면 자체 임기와 임명조항 등을 근거로 총회의 임명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한 총대는 "연금재단처럼 총회에서 파송한 이

사들이 총회의 해임결정을 무시하는 일을 막으려면 총회가 정당하게 임명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역시 꼬일 대로 꼬인 '총신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본부의 통제권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예장합동은 총신대 재단이사 선임을 놓고 총신대와 진통을 겪었다.

예장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총회본부가 총신대 의사결정의 최종 인준 기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총신대는 총회 지도를 즉시 시행한다' '총신대 재단이사 및 교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거 임명된다' 등의 내용을 정관에 신설했다. 백남선 직전 총회장은 "총신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선 정관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대는 "(총신대에) 즉각적인 징벌을 시행하는 대신 새로운 문제해결 장구를 마련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도 이번 총회에서 학교법인 환원학원 정관에 서울기독교대학교가 그교협 산하 학교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임종원 그교협 회장은 "총회와 학교의 법인이 다른데 '학교의 미래가 곧 총회의 미래'라는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 정관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총회와 학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예장합동은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를 파송해온 재단법인 한국산송가공회가 총회의 뜻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총대들은 법인 한국산송가공회 이사인 서정배 전 총회장에 대해 총회장 예우를 박탈하는 등 관계자 제재를 결의했다. 윤두태 새찬송가위원회 서기는 "교단이 뜻을 모아 세운 단체가 교단의 뜻에 따르지 않는 점, 운영에 있어 교단이 아닌 법인이사가 주체가 되는 점 등이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 단호

보수·진보 교단 떠나 "동성애 반대" 한목소리

주요 교단 총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인 성경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최부옥 목사)의 결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장은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고 동성애 옹호 활동을 펼쳐온 임보라 목사와 향린교회가 소속된 교단으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총대들의 생각은 달랐다. 교회와사회위원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허용해 달라'는 현의안을 제출했지만 총대들은 반대 258명, 찬성 74명, 기권 106명으로 기각했다. 기장 총대조차 최소 58.9%는 동성애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동성애 긍정론자들의 선거 낙선운동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동성애 옹호·조장 관련 법안 및 퀴어문화축제 반대의 건은 사회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미국장로교회(PCUSA)의 동성애자 목사안수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소를 권면하기로 했다. 이성희 부총회장은 취임 인터뷰에서 "동성애 문제는 차별금지법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법이 통과되면 복음전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교회는 성경적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하겠다"며 동성애 저지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예장고신(총회장 신상현 목사)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경적 신앙수호를 위한 교단 전략팀 구성 방안을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유영식 목사)도 총회에서 동성애 반대 대책을 결의했다.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성애 문제를 빌미삼아 결집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명령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신성한 결혼제도를 지키고 에이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회장은 "따라서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저지·이슬람확산·종교인 과세대책 논의

한교연 임원회, 차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거론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1일 서울 종로구 김삼옥로 한교연 회의실에서 임원 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이슬람 확산, 역사교과서 편입 서울 등의 문제점을 전국교회에 알리기로 했다.

한교연 임원들은 차별금지법안, 이슬람, 종교인 납세 등 한국교회가 당면한 3개 이슈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최귀수 선교국장은 "대한민국에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다양한 활동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적 테두리를 통해 보장되고 있다"면서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동성애자 두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퀴어문화축제 등 공개 행사를 통해 부도덕하고 비위생적인 성행위를 인권인 것처럼 포장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국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가정이 5000가구로 추정되는데, 유럽처럼 출산을 통한 이슬람 확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할랄식품이 건강식으로 홍보되고 이슬람 사원·센터·기도처가 증가추세에 있는 등 점점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인 납세는 국회에서 통과돼

야만 시행되는 문제로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기부금 납부와 비슷한 개념의 자진납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교회가 단일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명수 기독교역사정립위원장으로부터 역사교과서 문제를 보고받았다. 박 위원장은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불교가 4쪽 이상 기술돼 있지만 기독교 서술은 한 줄에 불과하다"면서 "교과서에 종교편향이 심각한 만큼 교과서 집필기준의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을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들은 대표회장의 연회비를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의 결정을 차기 대표회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의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선거는 다음달 23-24일 후보를 접수한 뒤 12월 11일 치르기로 했다. 올해 대표회장 후보군은 '나'군 교단(회원 교회 수 1000-3500개)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이 해당된다. 기성 총회장을 지낸 조일래(인선 수정성결교회) 목사가 단일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성명

245개 교계 및 시민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김조광수·김승한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동성결혼 합법화반대국민연합' 이용희 공동대표를 따라 줄지어 섰다. 굵은 표정이었다. 이 공동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정서에 반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 달라"며 성명을 낭독했다.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성명에서 "혼인은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칠 사회적 파장과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서방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방국가에서는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가정의 전통적·보편적 개념이 무너지면서 중혼(重婚, 일부다처·일처다부), 근친혼, 그룹혼, 동물과의 결혼 등도 합법화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에는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건강한시민을위한국민연대, 전국유권자연맹,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자유통일청년연대 등 245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합은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내세워 갖가지 결혼 형태를 인정받겠다고 한다. 동성결혼 인정은 결혼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

는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혼 합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21개 국이고 동성애·동성혼을 금지하는 나라는 그 4배인 약 80개국"이라며 "서구선진국들이 동성혼 합법화로 진통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동성애·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윤리선진국이 되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를 세우고 통일한국, 선진한국을 일구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결혼의 기본질서 무너뜨리는 동성결혼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필요함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약 4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양승태 대법원장 앞으로 제출했다. 이에만 자유통일문화원장은 "선진국의 것이라고 해서 모두 선진 문화는 아니다"라며 "음란함이 가득한 동성애 문화가 아직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에는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건강한시민을위한국민연대, 전국유권자연맹,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자유통일청년연대 등 245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로 새출발 결의
교단장협의회 복원...조직구성, 정관개정안 통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등 14개 주요 교단은 1일 서울 중구 정동길 정동제일교회(송기성 목사)에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복원과 가장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로 개칭을 위한 총회'를 갖고 조직 구성 및 정관 개정안을 결의했다. 교단장협의회가 '모임'이나 '회의'가 아닌 '총회'로 모인 것은 2008년 12월 29일 제8차 정기총회를 가진 이후 6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총회에는 예장통합과 예장합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등 14개 교단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여가 예정됐던 24개 교단 중 예장합동, 대신, 고신, 기독교한국침례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10개 교단은 불참했다.

전용재 기장 감독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안전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을 논의했다. 명칭은 교단장회의로 바꾸기로 했다. 교단장회의의 상임회장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교단장협의회 복원의 의에 앞장섰던 예장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성, 기장, 기하성여의도순복음 등 7개 교단이 맡기로 했다. 이어 상임회장단에 위임해 임원을 선임한 후 고지하기로 했다.

정관의 설립 목적은 '한국교회의 교단장들이 친교를 나누고,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사회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공

형평 안맞는 정부 종교지원금

불교 56.4% vs 개신교 2.8%

'한국행정학보' 논문서 지적

정부의 종교지원예산이 일부 종교에 편중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은 관광정책으로 위장된 종교지원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학장 김경수(사진)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에 수록한 논문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 우리나라 종교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교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지원 예산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도 수 비율이 43.0%인 불교가 종교수 지원예산의 56.4%를 지원받음으로 나타났다. 민족종교와 유교도 각각 신도 수 비율은 1.5%와 0.4%에 불과했지만 예산은 7.3%와 12.1%를 지원받았다. 반면 개신교는 신도 수 비율이 34.5%로 높았지만 예산의 2.8%를 지원받

는데 그쳤다. 김 교수는 "이는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배분"이라며 "종교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불교계의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광정책으로 위장된 종교지원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는 2004년 18억원에서 지난해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교수는 "표면적 명분은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진흥정책이지만 실상은 공공보조금으로 불교의 선전·포교활동을 도와주는 명백한 종교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종교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정부와 종교가 유착하고 종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의 경우 1999년 약 26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2013년 608억원으로 2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예산이 약 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문화정책학회 회원과 대학원생 등 440명을 대상으로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24명 중 75.8%가 종교의 예산규모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43.5%는 아예 종교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응답자 중 68.8%는 종교의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종교화합과 교류 지원'(63.7%)과 '종교문화활동 지원'(59.3%)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종교의 종교시설 건립지원(복수응답)과 관련해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83.9%) '불교 진각중 진각문화 국제체험관 건립'(79.8%) '7대 종단 지도자 이웃종교체행 해외 성지순례'(79.0%) '안동 종교타운 조성'(78.2%) 등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불륜에 가까운 밀회'로 비유할 수 있다"며 "이런 밀회는 공공행정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성 없는 국고지출을 야기해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종교 간 갈등

과 종교 자체의 타락을 부추길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이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엄청난 사회적 비극이 초래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등으로 증언한다'로 명시했다. 이는 현행 정관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기구를 창설한다'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주요 사회 현안에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구성을 위한 회원규정에서도 '현행 연합기구의 대표자 약관명'을 삭제하고 '직전 교단장, 교단장, 부교단장, 총무 혹은 사무총장'으로 명시했다.

토의에 앞서 채영남 예장통합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경건회에서는 남궁선(예장한영) 안만길(예장합신) 이동춘(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임종원(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 김진호(기성) 총무가 차례로 나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하나 됨' '민족의 화해와 동북아 평화' '한국사회의 갈등 해소'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기도했다.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 (8)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ISIS 종말론 사상

이슬람 테러를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자들은 이슬람 종교의 교리적, 신학적 요인이 테러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간과한다. 이유는 그들은 종교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을 처음부터 거절하기 때문이다. 종교집단의 과격행동을 사회, 경제적 소외나 식민지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부분적 정답을 줄지는 몰라도 궁극적 해답은 아니다.

이슬람 과격집단의 테러는 이슬람 종말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2012년 Pew 여론연구소는 중동과 북 아프리카 남아시아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종말 심판 전에 마호

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2006년 이란의 시아파 본부가 있는 쾰마르라는 도시의 이슬람 신학교를 직접 방문, 그 신학교 부학장과 대화를 하였다. 물론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교수로 소개하였다.

그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죽지 않고 시아파 천당 4층에 있고 메시아인 12번째 이맘은 7천년에 있는데, 그가 지상에 나타나면 종말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들 메시아를 수종 드는 자로 뒤를 따르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동적으로 시아파 무슬림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무슬림이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깊이 음미해야 할 말이다.

않는 자들의 세계를 청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종말의 전쟁에 참여하는 주요 전사라는 확신에 휩싸여 있다.

“끝없는 전쟁이다.”

요르단 왕 압둘라 2세는 이슬람 국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전쟁은 수 세대에 걸친 전쟁(generational fight)이 될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였다. 이 전쟁은 이데올로기적이다. 그러나 IS는 서구에 위협이지만 동시에 이슬람에 위협이 되고 있다. 2015년 5월말 싱가포르 수상은 동남아 IS위협을 강도 높게 경고하였다. 그는 공산주의가 몰락하는데 70년이 걸렸는데, IS는 중

대상국이다. 2002년도 한국 정보당국은 테러위험 인물들을 검거 추방하였다. 이미 한국은 이슬람 테러단체의 돈 세탁국가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출생 청년들이나 어린이들 중에서 자생 테러범이 등장할 수 있다. 구라파에서처럼.

서구는 이미 “문명충돌”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극우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고 있다. 반 이슬람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동시에 반 유대정서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은 모두 174건으로 이슬람에 한 건 풀이다. 반면 이슬람 국가들은 다른 종교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015년 4월3일자 뉴스위크지는 “새 엑소더스”라는 특집기사에서 중동에서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어져가는 상황을 생생하게 보도하였다. 기독교 탄생지에서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수년 전 범교단 이슬람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교단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교회를 순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슬람의 위협을 알리는 책자도 많이 나온다. 반면 무슬림들도 이슬람 테러는 이슬람이 아니라는 홍보를 하



파라과이

변화되어가는 한 알의 밀알,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 인디언 추장들의 얼굴은 늘 무표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냉대를 받아온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웃을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섬김과 사랑에 눈물을 보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인디언 추장학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18차례의 인디언 추장학교를 통해 변화된 추장들은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으로 심으신 소중한 밀알입니다. 그 밀알이 맺는 열매들로 인디언 어린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디언 추장학교

인디언들의 자립능력계발을 위해 5일 동안 농업, 양계, 양돈, 양어, 양봉, 임업, 보건위생 등의 교육과 함께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부족마다 스스로 세운 추장의 리더십을 통해 부족 전체가 자발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찾아가기 힘든 오지의 소수 부족들까지 제자와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효과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계속적으로 농기구, 성경책, 의약품, 의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왕복차비와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후원과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18차 인디언 추장학교 소식

지난해 인디언 추장학교 10주년을 맞이하여 보내주신 중보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제18차 추장학교에는 총 85개의 인디언 마을을 대표하는 123명의 추장들이 참석했고, 대부분이 40대의 젊은 추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맺힐 열매들과, 인디언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19차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학교는 10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열립니다.

생명의 쌀

파라과이에는 20개 부족의 12만 8천명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구호품들은, 파라과이 인디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인디언 마을 개발 및 원조

4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비닐과 천막으로 지어진 움막에서 살아가는 인디언들 위한 개발 및 원조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빈곤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인디언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찾아주세요.

말씀으로 변화된 에밀리아노 추장의 과라니부족 벨렌마을 이야기
Emiliano Rojas 추장은 추장학교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수료식에서 받은 인디언 과라니어 성경을 홀로 읽던 중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2013년부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며 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2014년부터 시작한 주일학교 예배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에밀리아노 추장을 통해 변화될 벨렌 마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세 가지 방울의 기적

단 한 방울의 물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면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인디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방울, 땀의 헌금방울, 주님의 핏방울이 모여서 몇백년 동안 인디언들을 가두고 있던 무지와 빈곤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싹을 틔워낸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인디언 추장들을 위한 후원이 작은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양창근 선교사
이메일: ckyang58@gmail.com

“순교는 영웅주의와 예배의 최고행위...인생딜레마 해결 최고수단” 주장 “이슬람 과격집단의 테러는 이슬람 종말사상과 관련 있다” 전문가 의견

디(Mahdi: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다는 질문에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은 83%, 이라크 72%, 튀니지 67%, 말레이시아가 62%나 된다고 통계를 발표하였다.

역사적으로 시아파 이슬람은 수니파 이슬람보다 묵시록적 종말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ISIS는 주로 수니파들이다. 그럼에도 ISIS는 종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증거는 아프간 전쟁 때 많은 수니파 무슬림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아프간 전쟁을 종말의 징조로 보았고, 반 라덴이 미국을 점령한 것도 미국을 종말시대의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양파의 종말사상이 유사한 것은 종말이 되면 기독교의 상징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자기들의 메시아는 지상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다. 결국 비무슬림 세계는 정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말에 등장하는 메시아 사상은 시아파가 더 강하다. 시아파는 사라진 12번째 이맘에 대한 전설이 있다. 12번째 이맘은 마흐디 혹은 메시아로서, 심판 때 온

이슬람 과격주의 그룹들의 궁극적 목표는 이슬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불신자는 다 죽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끔찍한 종말론 사상이다. 이란의 시아파 무슬림들 일부는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을 종말의 징조로 해석하였다. 아프간 전쟁 때 많은 무슬림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사우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참여하였다. 당시 일부 무슬림들은 아프간 전쟁을 종말의 징조로 해석하였다.

ISIS의 특징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아주 단순화시킨다. “평화의 집”과 “전투의 집”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은 비이슬람 세계를 궁극적으로는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을 제거하기 위한 “순교”는 영웅주의와 예배의 최고행위로, 인생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최고수단이라고 한다.

ISIS는 터키에 가까운 시리아의 다비크 점령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초기 이슬람의 종말사상도 종말에는 무슬림이 “로마”(비무슬림 세계의 상징)를 패배시키는데, 다비크가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다. 다비크를 점령하면서 이들은 칼리프제국 건설을 선언하였다. ISIS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교라 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거니와 더 오래갈 것이라고 하였다. 제3차 세계 대전이 중동에 정치와 행정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종말이 없는 전쟁으로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

이 시대는 극단적 종말론 사상의 대결이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은 온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고 테러를 감행하고 이슬람 국가건설을 외쳤다. 반면 기독교 급진 세대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계통치를 맡겼다고 주장한다. 버나드 루이스는 ISIS 극단주의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중세 암살단 역사를 예로 든다. 그러나 요르단 국왕이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슬람 극단주의는 쉽게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ISIS 바람이 한국에도 불었다. 한 청년이 IS에 가담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그 후의 소식이 궁금하다. 서구, 미국 호주의 많은 청년들이 IS에 가담하였는데, 이들이 들어오면 자국을 테러할 것으로 해당 국가들은 고심하고 있다. 한국도 테

러는 이슬람 포교에 적극적이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 특히 중동의 자금 유입(수쿠브)은 경제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기독교에 심각한 도전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국 내 “이슬람 파워”의 확산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은 없는 것 같다. 아니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

호주가 이슬람 테러에 대처하는 모범국가이다. 지금 호주 정부는 시민권제한 법안을 논의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슬람 급진주의 영향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급진주의 테러의 선동을 받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문교부장관이 밝혔다. 호주 수상 비숍은 6월2일 IS테러를 논의하는 구라파 외무부장관 회의에 참석하였다. 호주는 국회에서 IS가담자들에게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주 국가의 문화와 가치관에 적응하지 않고 이슬람에 더 충성하는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가 다 동의하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5월말 한 호주 신문이 보도하였다.

지금은 심각한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끝)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10월 22일(목) ~ 10월 31일(토)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i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일 갈멜산기도원 신년예배 1~10일 갈멜산기도원 신년축회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회(강화) 기도회 3일 인천강교회(인천) 기도회 8일 평택교회(평택) 기도회 11~13일 평택교회(평택) 부흥성회 4주부흥회 15일 평택교회(평택) 부흥회 18일 평택교회(평택) 부흥회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미국) 15일 시몬스교회(미국) 부흥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22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종교회(미국) 부흥회 27일 복학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미국) 부흥회 5일 총신대학교 신학생훈련(미국) (김지연총장) 9~11일 (함동대)부흥회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22~26일 갈멜산강회(미국) 기도회 29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온인 신세계교회(미국) 부흥회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20~22일 온인 신세계교회(미국) 부흥회 23일 캠퍼스교회(미국) 부흥회 26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회령교회(미국) 부흥회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24~27일 함동대교회(미국) 부흥회 31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1일 갈멜산 강회(강화) 기도회(연합) 8일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15일 ~17일 온영교회(미국) 부흥회 21일 아우렐리오(미국) 부흥회 22일 ~24일 (함동)부흥회-회 고강승회 26일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청운교회(강화) 부흥회 20일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26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7일 ~29일 천마산기도원(미국) 부흥회	3일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9일 ~12일 나사렛성경연구원(미국) 17일 ~20일 GST 신학생훈련(미국) 30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6일 ~8일 청운교회(강화) 부흥회 14일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20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1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1일 ~23일 풍산교회(미국) 부흥회	4일 ~7일 동종교회(미국) 부흥회 11일 ~14일 일심교회(미국) 부흥회 19일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22일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11일 생성교회(미국) 부흥회 15일 대한교회(미국) 부흥회 18일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22일 대한교회(미국) 부흥회 29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30일 강사예교회(미국) 부흥회	1일 ~2일 강사예교회(미국) 부흥회 7일 ~10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13일 ~20일 GST 미션리서치 캠퍼스(미국) 27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8일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미국)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5)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19)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성경적 기초에 이어서 그 핵심적인 신학적 기초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가지의 신학적 요소들, 즉 성경의 권위(Biblical authority), 회심의 필요성(the necessity of conversion),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the redemptive work of Jesus Christ), 그리고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personal piety or spiritual formation)을 중심으로 그 신학적 기초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며, 오늘은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마지막 신학적 기초로서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신학적 기초는 신앙 교육내용의 근간이며, 전체 교육 과정

한 그렇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이란 개인적 차원만을 가리키고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넓은 점입니다(오늘은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이야기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및 영적 성숙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교육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첫 번째는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이란 신앙인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성, 감성, 그리고 실천적 전 삶의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인교회들이-한국교회들도 마찬가지로-인 듯합니다-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해 교육에 임한다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오하려 지식적인 바탕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양태를 띠어왔는데, 이는 그간 너무 지식적인 부분에 치우쳐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한인들의 종교적 요구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 감정적 터치와 정서적인 공감에 방점을 두고 사역에 임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종교사회학자들은 심지어 이는 감정적인 치유에 중점을 둔 한국 무속 종교의 정서적 문화적 영향이 한국교회에도 미쳤고 우리 한인들과 한인교회에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탓인지 우리 교회들안에서는 심지어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이란 성경적, 교리적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 경건/영적성숙” 지성과 감성의 종합적 균형 이뤄야 뜨거운 기도라도 성경 토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을 관통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의 핵심이 되는 기초라 파악할 바 있습니다.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인 성숙이란 바로 이러한 기초를 통해 형성된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그 신앙 자체가 성숙해가고 또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일평생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4요소 중 하나인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인 성숙이 교육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교육이란, 성경이 그 원천이 되어 회심을 일굴 때, 구속사적인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르치고 그 안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양육함으로 신앙을 형성토록 도우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의 의미대로 형성되어진 신앙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평생 성숙해 살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교육의 신학적 기초로서 단단히 자리매김 되어야 할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 한인 교육자들에게 잘 이해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에 맞게 잘 교육되고 있는가입니다. 이에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이란 본디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또한 실질적인 실천들이 함께 개발되어져가는 과정이며 또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들은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해 교육한다고 할 때 (1)지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의 종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 (2)균형 잡힌 신앙적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고 녹여내는 실천을 일구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 (3)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실천적 부분이 통합을 이루는 것을 놓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위의 (1)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에서 (2), (3)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해 교육에 임한다고 할 때, 그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은 지성과 감성이 종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역시 성경말씀 위에 그 기초를 단단히 쌓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교회들에서는 그 전반적인 교육양상에 있어서 지적인 부분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왔기 때문에, 그 감성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신앙양상 자체가 메말라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에 대해 교육할 때는 감성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한인교회의 형편은 이와는 다릅니다.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은

이에 사역자들이 먼저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한 사역이란, 지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기억하고 그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적박하고 힘겨운 이민의 삶에서 감정적 소모가 많고 상처가 많은 그래서 심적인 위로와 감정적 환기가 절실한 우리 한인들은 섬기는 한인교회들이기에, 그래서 더더욱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터치하고 다루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한인교회 사역자들이기에 그 균형을 일구려는 생각과 실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균형 잡힌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치는 것은 상상누각이며 방향성을 잃은 항해와도 같아서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적 경건과 영성을 성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교리적인 지식의 기반과 그에 대한 성장은 없으면서, 자신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토해내며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감정적 환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서적 공감, 이에 더하여 방언과 치유 등의 신비적 경험 등으로만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은 진정으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며 방향성이 불분명한 사역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심각하게 인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삼상15:10-11)

사람이 남의 잘못된 것을 계속 추궁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잘되고 승리할 때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권한을 물려주어 백성들이 100% 따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왕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있습니다(요14:23).

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삼상15:12)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세워도 숨고 또 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배후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때는 늘 성령충만해서 백성들도 더욱 존경하고 전쟁에도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자기 영광으로 돌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공적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공로도 우리가 했다고 말하면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뿐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자랑하며 삽시다.

수 내가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나이다(삼상15:13-14)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사무엘에게 당당하게 여호와와 명령을 다 행했다고 오히려 자랑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기보다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과 속이 똑같아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함

니다. 좋은 것은 다 감춰놓았지만 양떼의 울음소리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14절). 이것은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주시고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목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삼상15:15-21)

사울왕이 버림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15절, “무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숨겨놓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더니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을 탈취했다고 책망을 했는데도 사울은 또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20, 21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낳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길도 한번 잘못 들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변명하거나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삼상15:22-23)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변명하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하는 사울에게 그러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순

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거역하다”, “안고하다”는 두 단어는 말씀을 따른다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은근히 거역하고 은근히 고집을 피우면 이것은 점치는 행위와 같고 허탄한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토 그가 사울을 인하여 슬퍼함이었고(삼상15:24-35)

본문에는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마지막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사울이 정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 아니고 계속된 변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지도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

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반드시 진지하게 올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더욱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경사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취득
-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인수(남,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필수 있다.
- 3) 본교는 미국 미조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6)



엄예선 박사
(풀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VII. 자기관리

1. 자기 관리의 중요성

앞에서 목회자의 간접적 외상 스트레스를 거론했는데 목회 현장 속에는 이런 스트레스 외에도 목회자와 성도간의 갈등, 목회자 간의 갈등, 교우들 간의 갈등, 목회자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과중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깔려있다. 이것들은 마치 권투선수

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헌신이다(Oswald, 1995). 자기관리가 안될 때 탈진된다. 목회자가 탈진되면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으며, "정죄하는 설교를 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노출시키고 분노가 나오고...독이 있는 설교"(이동원 1999: 37)를 하게 된다. 동시에 탈진된 목회자에게 가정은 이미 자신이 지고 있는 목회의 짐 위에 얹혀진 또 하나의 큰 짐으로 느껴지므로 어떤 목회자는 성적 탈진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

2. 자기 관리의 방법들

1) 영성관리

이 부분은 앞에서 거론한 제자로서의 삶을 삶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영성이란 성령의 임재를 민감히 의식하고 성령의 깨우쳐주시심과 인도하심과 힘주시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김세윤, 2013),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일컫는다(Parrott and Parrott, 1995).

영성관리를 올바르게 하는 목회자들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alony and Augsburg, 2007).

(1) 기도, 말씀묵상, 신앙토론, 신앙서적 독서, 영적 일기쓰기, 찬양, 기도원 방문 등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신앙적 지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목회자가 자신과 가족과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목회할 때 그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는 목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목회라기보다 목회자 자신의 왕국건설을 위한 목회이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는 목회자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

2) 지적 관리

의사나, 상담가, 변호사 등이 malpractice를 하지 않으려면 부단히 공부해야 하듯이 목회자도 양떼들을 오도하지 않으려면 지적 성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평생 동안 해야 한다. 목회자가 지적 성장을 위하여 해야 하는 노력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학적 목회학적 사고의 능력을 기르고 그것에 비추어서 교회를 이해하기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문화적 상황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기르기 △삶의 다양한 고난과 인간관계의 고통들을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기 △역사적으로 혹은 현시대에서 훌륭한 목회자를 롤 모델로 삼기, 이와 같은 노력을 하기 위한 방법은 신학교 공부, 세미나 참석, 동료 멘토 선배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깊은 토론, 신학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경영학을 포함한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 등이 있다.

신학적, 인문학적, 사회학적, 경영학적 지식 이외에도 목회자는 정신병의 진단까지 내릴 수 없었으나 정신적 심리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적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의학적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는

목회자의 강한 면역체계 개발은 영적 지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의 자기관리 필수 기도로 소명의식 확인하며 사랑 베풀기, 바른 성경해석, 청지기 정체성 확인 등

에게 언제 어디서 끊임없이 날아올지 모르는 편지들과 같다. 목회자들은 이것들을 피할 수는 없다. 문제는 어떻게 도망가거나 싸우지 않고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한 가운데로 걸어들어가서 그것들을 바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들을 다루지 못할 때 어떤 목회자는 목회의 희생양이 된다. 어떤 목회자는 단순히 자신이 살아남는 데 급급하여 교회를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생존을 추구한다. 그러나 건강한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의 편지들을 어떻게 피하거나 저항할 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한 면역체계를 개발하여 이러한 편지들에 능히 대항할 수 있을 가에 관심을 가진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약한 면역체계이다. 목회자의 강한 면역체계 개발은 영적, 지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자기관리를 함을 통하여 가능하다. 목회자가 자기 관리를 못할 때 목회자는 성도들의 blessing이 못되고 burden이 된다.

자기관리는 목회자의 소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것은 자기도취와 다르며 우리가 하나

는 가정에서 사모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함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기도 한다(이동원 1999).

Ray Anderson(1990:162)에 의하면 "안식일의 휴식이 없는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저주의 신학이다." "안식을 못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일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목회자들은 소명의식이 흔들릴수록 인간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성도들을 오히려 더 혹사시키고 자신도 혹사시킨다." 현재 한국이나 이곳의 일부 교회 갈등의 문제들이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의 윤리적 문제들은 자기관리를 소홀히 함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3월에 엄청난 비행기 인명 사고를 일으킨 독일 비행사 Andreas Lubitz의 경우 어릴 때부터 비행사가 되고자 한 강한 열정도 있었고 비행사로서의 철저한 훈련도 받았으나 자신의 정서적 관리 즉 우울증 관리에 실패했으므로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특히 리더가 자기관리를 못할 때 한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파괴됨을 잘 설명해준다.

부터 공급받게 하고, 소명의식을 확인하게 하고, 목자로서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고, 성경말씀을 바로 해석하게 하고, 리더가 가야할 길을 제시받게 한다. 예수님도 바울도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 하셨다. 최순봉(2012:55)은 기도는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한다.

(2)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라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3) 공동체를 중시하고, 성도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지역 사회와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체감을 느낀다.

(4) 안식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을 귀중히 여긴다.

(5) 홀로 있는 시간을 정규적으로 가지며 그 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한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의 치유를 도와야 할 목회자가 올바른 지식이 없을 경우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상과 같이 교회 내에도 인격 장애자들이 약 10%는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바로 이들이 주로 교회 갈등을 일으켜 전체 교회를 뒤흔들므로 이 점을 막고 이들을 올바르게 돌봐주기 위해서도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또한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상담학에 관한 지식을 자신도 갖추고 성도들도 갖추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 이유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는 빌립보서 1:9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 내에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있으나 지식과 총명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오히려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 yeasunkim@gmail.com
(계속)

기도/칼럼

간절한 기도, 새벽기도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매달리며 울면서 간구했다. 다윗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요를 적시며 통회했다. 에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부르짖어 중보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회개했다. 예수님은 겔사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큰 빔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왜 기도가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지는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 만약 기도가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애절해질 수밖에 없다. '간절하다'는 뜻은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더없이 지성스럽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원어의 뜻은 "이른 아침에 일찍이 부지런히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구절이 번역본에 따라, "새벽에 찾는다. 일찍 찾는다"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새벽에 나가 엎드려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새벽에 나가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육체에 게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더구나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한 그 능력의 근원은 새벽기도에 있었다. 간절한 기도는 곧 새벽기도이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마가복음1:35).

이메일: bible66@gmail.com



(15면에서 계속)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 성경 말씀의 토대가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해도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는 모든 종교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과격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의 토대가 없다면 그저 자신들의 마음을 토해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도를 들어줄 의지의 대상이 필요해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일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기초를 두어야만 사실 제대로 된 기도의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또한 성경말씀에 기초를 두어야만 진정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며, 자신의 요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향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모쪼록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여 교육함으로, 우리 체제들과 자녀들의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을 균형 잡힌 그것으로 일구어 가기를 바랍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2015년 예수님의 기도학교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백-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리더를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영적리더가 되십시오

일 자

2015년 11월 9일(월 저녁)-13일(금 오전)

장소/ 밴쿠버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12969 Crescent Road, Surrey, BC V4P1J8 Canada

밴쿠버 도착: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YVR)

등록문의

admin.ictc@gmail.com Katalk/ prayingforspain

강 사

크리스 해리스 목사 깊은 기도와 말씀사역의 내적치유 강사
이영환 목사 기도와 전도로 부흥하는 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고승희 목사 중보기도로 가정을 회복하는 LA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나의 기도의 삶" 특강

영희 맥도널드 목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덴버 교도소 체류된
박신일 목사 기도로 꿈을 이루어가는 목회자(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박헌승 목사 금식과 철야로 영적성교를 하는 목회자(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성현경 목사 기도로 시대를 보는 목회자(뉴저지 가스펠헬로스교회)

후원: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